3재복,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처천지'
지리산 야생 작설차로 심신을 투명하게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 비자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사용해도 약정금리로!
• 교육자금 주택자금 경조사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5월 3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아름은 화가와 같아서
부처도 그리고 중생도
그린다. (화엄경)

법회 안내

월각사 (02)742-0085
남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인명법회 매월 5일(음) 오전10시
신행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넷째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장승백이 법륜사(02)814-9945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입제
매월 3일(음) 회향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홍천 수타사 (0366)33-6611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6시

대구 관음사 (053)421-3700
관음법회 매월 1~3일 오전10시
불일법회 매월 9일 오전10시
바보회법회 매월 15일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7시

호국 연화사 (0356)85-0686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30분
수요법회 매주 오후7시30분
입요정기법회 매주 오전10시30분

광주 금륜회관 (062)224-0175
정기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중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6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남북 불교교류 '희망찬 진전'

북경합의, 월주스님 7월말 방북키로

오는 7월20일부터 8월5일 사이에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의 관문점을 통한 방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북한 불교지도자가 한자리에서 봉행하는 남북평화통일기원 합동법회가 같은 시기에 평양에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3 · 16면〉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법타스님(평불협 상임부회장) 설송스님(조계종 사업부장)과 박태호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 심상련 조불련 서기장 · 류성철 조불련 상무위원은 지난 24일 정오와 오후 6시 북경 랜드마크호텔 서라벌 식당과 옥류관에서 각각 두차례의 회동을 갖고 월주스님 방북 초청, 남북통일기원법회개최 등 불교교류 현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 후 남쪽 실무대표단장 법타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측이 오는 7월20일부터 8월5일 사이에 월주 총무원장을 비롯한 남한 불교 지도자들을 초청하겠으며, 당국과 협의 6월안에 초청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며 "월주스님은 관문점을 통해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북측에서도 쾌히 승락했다"고 말했다. 법타스님은 또 "방북인원은 실무자와 수행인 및 기자를 포함 10명 이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불교병원 지원건립 및 북한불교유적지 복원등 현안은 남북한이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타스님과 시현스님(조계종 문화사회부장)등 스님 4명에게 7월20일부터 8월5일 기간의 방북 초청장이 전달됐다.

〈중국 북경=이경숙 기자〉

정부, 월주스님 방북 허용

정부는 남북 불교대표들이 북경에서 합의한 월주총무원장의 7월말 방북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국의 승인절차를 철저하게 밟고 활동도 순수 종교에만 국한시킨 월주 총무원장의 경우는 남북 종교교류의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면서 "방북신청이 들어오면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등 논의

전국승가대 교직자협

전국승가대학 교직자협의회(회장 수진.해인사 강주)는 지난 19일 동화사에서 모임을 갖고 승가대학의 명칭을 강원으로 바꾸기로 하는등 승가대 현안문제를 논의 했다.

전국 15개 승가대에서 40여명의 강주 강사 중강스님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승가대 명칭을 강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결의하고 종법 개정을 위해 '승가대 명칭 개칭의 건'을 종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교육원이 추진하고 있는 승가대 학제개편, 통폐합등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 교직자협의회에 일임해 줄것을 요청키로 했다.



"잘해 봅시다" 지난 24일 북경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과 박태호 조불련 위원장은 굳은 악수로써 민족 통일과 화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지자제 공식입장 곧 발표

조계종 총무원… '불교 역할' 책자도 발행

조계종총무원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자제 선거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즈음해 지자제에 따른 불교인의 위상과 역할을 정리, 공식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총무원은 조계종과 불교계의 지자제 준비 및 방향을 정립키 위해 그동안 16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해 왔으며, 세미나 발표문을 묶어 책자도 발행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녹수청산에서 열린 제16차 세미나에서 손혁재씨(지방자치연구소 연구위원)는 "지방자치는 한국불교 개혁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불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협력 '북경선언' 채택

첫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공동사업기구 설치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불교유대와 상호 협력을 위한 제 1차 '한 중 일 불교우호교류회의'가 지난 22일부터 중국 북경에서 열려, 공동사업을 펼치기 위한 상설 기구 창립을 비롯 공동 활동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북경선언'을 채택하고 23일 폐막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 월주 종단협회장을 단장으로 20개 종단대표 30명이 대표로 참석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각각 조박초(趙朴初) 중국불교협회장, 나카무라(中村瑞隆) 일본불교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30명씩과 참가단등 총 1천여명이 참석했다.

22일 오전 9시에 세 나라의 독경으로 시작된 불교회의는 조박초 회장의 개막사, 한국과 일본대표의 축사, 이봉 중국 총리등 각계 인사 축하 메시지 낭독으로 이어졌다. 당일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삼국 단장 및 부단장들의 기조연설 보충발언이 각각 진행됐다.

월주 한국단장은 기조연설에서 "한 중 일 3국은 지난날 민족간 갈등이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불교위상과 공동이익을 함께 구현하여 동북아 지역의 사상적 문화적 지주로서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23일 오전 9시부터 공제사에서 세계 경화기도법회를 봉행한 3국 대표단은 경내에 '중국 한국 일본 불교우호長壽樹'를 기념식수했다.

오후7시30분부터 열린 폐막식에서 '한 중 일 불교우호교류회의 북경 선언'이 전원박수로서 채택됐다. 〈관련기사 3면〉

국립공원인근 환경대책 촉구

종교 · 사회지도자 1천3백여명 서명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과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크리스찬아카데미원장 등 종교계 지도자를 비롯한 각계인사 1천3백22명은 지난 22일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종합적인 환경대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월주스님은 "환경파괴적인 지역개발 허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수익증대를 위한 개발사업 유치경쟁등으로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자연공원법의 환경보전중심 개정 △국립공원 지역에 스키장 골프장 허가금지 △그린벨트 훼손 중단 △환경영향평가 국가기관 신설 △국립공원 관리업무 환경부로 이관 등을 요구했다.

법공양란 발행 타블로이드 8면

목어

"스물 하나…. 서른 둘…" 자식이 밤늦게 귀가를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이십리를 달렸습니다. …. 예순다섯… 자식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내려 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가슴 몽클케하고 콧등 시큰케하는 이 글귀. 5월 가정의 달에 삼성생명은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와 함께 '효' 캠페인 광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를 각 인쇄매체에 내놓았다.

광생을 자식사랑으로 살아가는 보통 아버지와 보통 어머니의 인생 노정을 잔잔하게 풀어낸 두편의 광고. 선보이자마자 포스터를 주문하는 전화가 하루에 2천통 이상 걸려올 정도로 감동과 화제를 뿌렸다.

'孝' 아직 시들지 않았다

'존속 살해사건 9일에 1건, 자식의 부모폭력 하루 3·2건, 부모들이 내다버린 자식 하루 9명꼴' 강지원사법연수원교수(부장검사)는 94년도의 '범죄시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가정을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가리봉동에는 10대들의 가출촌이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는 당신을…'에 나타난 큰 반향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이땅의 효와 자식사랑 그리고 가정윤리는 아직 시들지 않았다고 희망을 가져도 좋을까.

가정의 달 5월이 가고있다.

그러나 일년 열두달 내내 가정의 달 이고 가정의 날이길 바란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 삶의 둥지으므로.

공명선거 감시 불자들 나섰다 15면



사 설

남한과 북한의 불교계 대표자 회담이 지난 5월24일 베이징의 랜드마크호텔에서 있었다. 남북한 불교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한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장차 민족의 항구적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모임이었다.

이번의 모임에서 양측의 대표자들은 통일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였으며, 남북한 불교계의 효과적인 교류 방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논의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불교계의 지도자들을 7~8월경에 북한에 초청한다. 둘째 조계종 총무원장인 월주스님을 관문점을 경유하로 한 것은 분단의 벽을 낮추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이 분단된지 반세기나 흘렀다. 1세대 이상 문화적 단절감 속에 분단민족의 설움을 겪어왔다.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적극적인 평화통일 노력이나 문화적 단절감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부족했다. 체제수호의 논리나 이념적 주의 주장을 고수하기에 바빴다.

이제 동서의 이념적 갈등이 무너져 버렸다.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기 보다는 상대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상호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남아 있는 지구상의 갈등 요인이라면 민족과 종교적 문제로 국한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한의 불교

불자다운 남·북 교류 기대

여 초청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광복 50주년 조국평화통일기원법회를 공동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남한 불교계에서 제시한 북한의 불교병원 건립, 북한 소재 불교유적지의 복원불사 지원, 남북한 불교계의 만남을 매년 4월 초파일로 정례화, 8·15이후 로스앤젤레스에서 남북한 해외 불교지도자의 연석회의 개최 등은 양측이 왕래하면서 점차 개선하기로 한다.

이상의 사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 접근은 몇가지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양측의 최고 지도자들이 방북을 합의한 것은 남북 불교교류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방북 때 해외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관문점을 통한 육로를 이용하기

계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상호방문의 길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지극히 뜻깊은 일임에 틀림없다. 이제 문제의 실마리를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고 본다.

남북 불교계의 회담 장소도 평양과 서울로 국한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금강산의 어느 사찰이나 묘향산의 어느 사찰 혹 남한의 어느 사찰에서 돌아가며 만나고 법회를 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적 시각보다는 양 불교도들의 원형적 정서를 통합시키고, 단절된 민족 공동체의식을 앙양할 수 있도록 작은 일부터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녕 부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 일체의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하리라 본다.

열 린 마 당

불교환경운동

6월5일은 제23회 환경의 날. 불교계 환경운동의 현황을 점검해 보고 비람직한 방향을 살펴본다.

'우리는 파수꾼' 진각종·교육원·공추불 등 활동

'심청정 국토청정' '실유불성'. 불교의 가르침은 그대로 환경운동의 지침서이다. 교계는 80년대 후반부터 환경운동이 곧 붓다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보살행임을 인식해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불교계에서 가장 먼저 환경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나선 단체로, 88년 3월 창립이후 생태·환경교육 강좌인 생태학교와 생활양식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키 위한 '생태주의 이념과 경향' 세미나 등을 열어왔다. 특히 10기까지 개설된 생태학교는 150여명의 수료생들이 실천모임인 '초록바람'을 결성해 생태주의운동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오는 6월 3,4일 불교계 25개 단체가 참여하는 '청정국토 한마당'을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교계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로 꼽힌다. 자료집〈동양사상과 환경문제〉를 펴내기도 했다.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 92년 2월 부처님의 공존공생의 연기사상에 입각하여 공해를 추방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시민운동전개를 취지로 창립했다.

'불교사상과 환경보존' 주제의 환경세미나, 금연침시술 등 순수불교시민운동을 벌여왔다. 계간지 〈공해없는 세상〉을 5호까지 발행해 문서를 통한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다.

청정국토가꾸기운동본부 진각종이 종단차원에서 전개하는 이 운동은 '淸心淨土'를 모토로 환경정화사업, 생명존중사업, 세상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자는 지은보은(知恩報恩)사업의 3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심인당에 대형 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환경강좌를 개설해 매주 목요일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봄·가을 3개월 과정으로 개최하며, '불교와 환경문제'를 비롯 8개 강좌를 진행한다.

경불련 환경모임 지난 3월 발족하며 장바구니 1천개를 무료 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부환경모임은 이후 무공해비누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지키자 폐품 재활용·물물교환 등 앞장

교환하고 재활용하자 가구 의류 등 쓰지 않는 물건을 신도들끼리 교환할 수 있도록 하자. 사찰에 물물교환 알뜰가게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환경법회를 열자 정기적으로 환경법회·강좌를 열어 사찰이 환경교육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자.

유행의 허울을 벗자 현대는 유행의 시대라 할만큼 의류는 물론 가전제품 자동차에까지 유행을 쫓는 실정이다. 자기만의 개성있는 생활설계가 더욱 빛나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과대포장상품 안사기 포장은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겉모양의 화려함보다 실속을 중시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요구된다.

절전제품 사용 전자제품 구입시 전력사용량표시를 확인해 절전형 제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자.

내 물건처럼 아끼자 사무용품 또는 공공시설물 사용시 자신이 직접 비용을 대지 않았으니 마구 써도 된다고 생각을 버리자.

환경행사 열기 사찰을 비롯한 불교단체에서 환경관련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어 환경보호 인식의 확산과 실천운동을 펼쳐나가자.

환경표시회사 제품 안사기 환경을 파괴하며 이윤창출에만 몰두하는 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많이 걷기, 자동차이용 자제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이 대기오염의 주원인이다. 자전거 타기는 좋은 대안이다.

청정국토 10선계 지키기 탐진치 제거, 쓰레기 분리수거, 천연세제 사용, 음식물 안남기기, 일회용품 사용않기, 장바구니 사용, 금연 금주, 자비 실천, 생명존중, 근검절약의 생활화.

특별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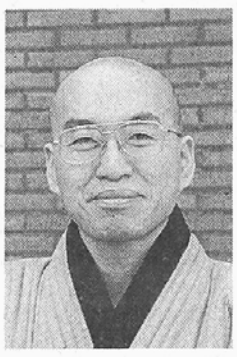
'원상 복구' 아닌 생명운동

많은 사람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자연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질과 대기를 보존하고, 파괴하지 않는 실천운동을 벌이며, 저항과 반대를 통해 파괴를 방지한다는 운동으로 한정시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이 과연 그 정도의 내용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공해라는 말로서 처음에 유포되었다. 이것은 이미 그 언어속에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 부도덕한 기업주와 정권, 그리고 제국주의적 선진국의 기업들이 그들인 것이다. 그러나 92년 브라질 리우에서의 환경회의 이후로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공해라는 제한된 개념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환경이라는 말이 보편화된 듯하다.

사람이 환경파괴 주범

그러나 애석하게도 환경이라는 말 또한 현재의 위기적 징후를 설명하는 용어로서는 역시 적당하지 않다. 환경문제의 진정한 내용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며 원상복구하자는 관리주의운동(이것은 개량주의 운동이다)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 사람의 문제, 가치관과 세계관, 정치 사회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잠시 좋아졌다고 해도 머지 않은 장래에 다시 파괴될 것이다.



법 륜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역사는 내발적인 자기발전에 의해 성장해 왔다기 보다는, 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국제화된 위기의식으로 각종 환경적 무역규제와 정치적 압력이 세계화되면서 우리나라안에서 환경적 의식이 고양된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환경운동에 관한 다양한 논의나 철학적사고는 반약한데 반하여 대부분의 환경운동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운동, 수질과 대기오염을 반대하고, 개발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운동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저항운동과 '…을 하자'는 창조적 대안운동이 동시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환경운동이 바라는 대안적 사회는 무엇이냐' '환경적 삶이 무엇이냐' '환경운동의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과거의 사회운동은 현실적 여건보다 이념적 당위에 매몰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환경운동은 현실의 과잉, 이념의 빈곤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천이 중요하지 관념적인 이야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제발 끝나야 한다. 그동안 생활속의 실천방법이나 수칙들은 TV나 라디오, 신문과 각종 기업의 홍보물속에 이미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너무 진력이 나게 이와 같은 실천이 환경의 전부인양 보도되고 알려졌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미 소비할 것 다한 뒤에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쓴다는 자원재활용운동은 '파이프 끝 전략(End of pipe)'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자원재활용운동은 쓰레기가 나올 상품을 아예 처음부터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사람들 개개인에게 어려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자기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곧 수행이 절실히 필요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원소모적인 상품은 아예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산업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자원재활용운동은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비롯하여 결국 개인의 생활양식,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운동이며, 개인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운동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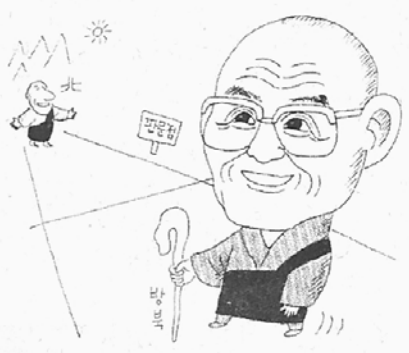
환경문제는 자연환경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정신문제이며, 문명의 문제, 경제와 정치, 모든 가치관, 생활양식, 총체적인 모든 문제이다. 그래서 그것을 운동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생명운동'이라는 용어이다.

서로가 서로를 살려야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의 결합과 정보의 결합에 의해 내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결합의 하나하나가 생명인 것이다. 자연의 모든 생물이 나의 구성요소이며 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의 토대인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생명관이며 일체의 생명관이다.

환경문제는 인간이 인간을 향해, 인간이 자연에 대해 죽이는 모든 시스템을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사회, 인간이 자연을 살리는 체제로 만들자는 살림운동인 것이다. 그래서 생명존중의 전통과 사상, 불교의 수행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현 대 만 평 박구원



큰 길로…

'청정국토 한마당' 행사 내용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를 주제로 한 청정국토 한마당이 6월 3,4일 이틀동안 조계사와 인근 수송공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계 20여 참가단체가 각 행사를 주관한다.

6월 행사 명		일 시	내 용 · 주관단체
청정국토 기념법회		3일 오후3시	환경실천 서약서 작성
문화행사	환경영화상영	4일	한국불교문화원
	어린이를 위한 연극공연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노래부르기	〃	대불청 서울지구
	환경비디오 상영		조계사 청년회·중고등학생회
	생명나무 만들기	3,4일	공동행사
	만화가 사인회	4일	만화가 신영식씨 초청. 조계사 어린이회
	불자가수 초청공연	3일 오후5시	공동행사
전시행사	생태기행사진전	3,4일	두레생태기행
	자연환경사진전	〃	초록바람
	유기농사진전	〃	초록바람
	매립쓰레기사진전	〃	초록바람
	환경도서전	〃	조계사 청년회
교환·판매	무공해비누 무료제공	〃	두레생태기행
	무농약농산물, 환경상품 전시 및 판매	〃	석왕사 생협
	우유곽·화장지 교환	〃	석왕사 생협
	전통음식 먹거리 판매	〃	불교어머니회
캠페인	환경가두캠페인	3일 오후4시	공추불
	장바구니 나눠주기	4일	경불련 환경모임
	헌옷 기워주기	〃	경불련 환경모임
	맑고향기롭게 스티커 배부	〃	맑고향기롭게 운동본부
	환경가훈 써주기	〃	자비의 전화
학술기타	'국립공원보전' 심포지엄	8일 오후2시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불자환경설문조사	3,4일	한국불교문화원

봉 (불기 2539年)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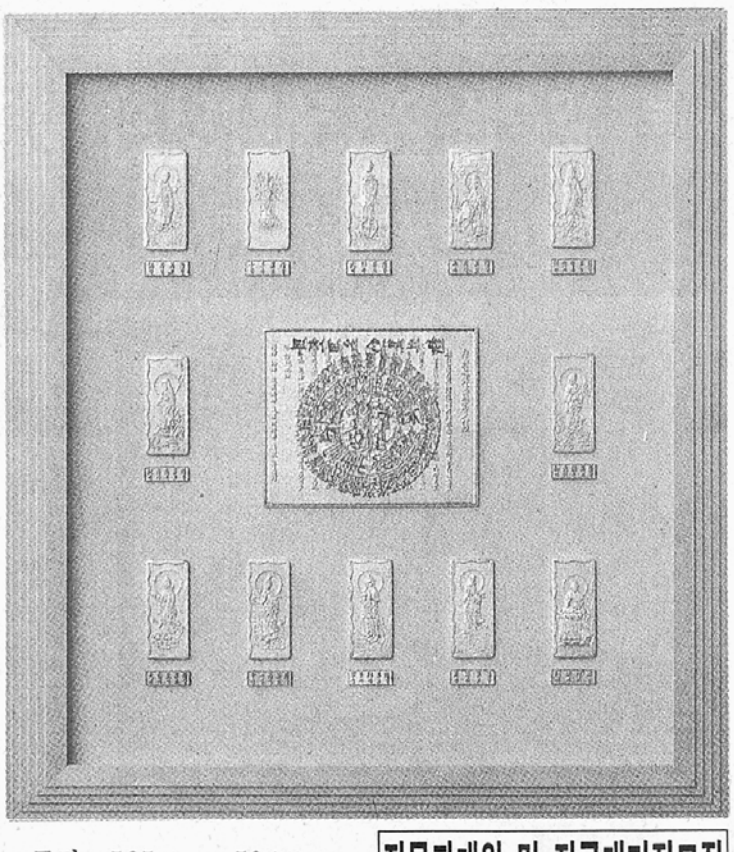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부귀장수 소원성취를 누리십시오.

『부처님에 신비한 힘』

한국불교의 12보살님의 모든 것을
예술성 높은 장식기념물로 만들었습니다.

滿月菩薩(만월보살) 千手菩薩(천수보살)
大輪菩薩(대륜보살) 水月菩薩(수월보살)
觀世音菩薩(관세음보살) 觀自在菩薩(관자재보살)
如意輪菩薩(여의륜보살) 大勢至菩薩(대세지보살)
十一面菩薩(십일면보살) 軍茶利菩薩(군다리보살)
正趣菩薩(정취보살) 阿彌陀菩薩(아미타불)

- 1995年은 불기 2539年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12보살 소장품을 1995 세트만 한정 판매합니다.
- 직사각안의 글씨는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이고 원형그림은 소원성취 만사대길이라하는데, 즉 이 뜻은 부부화합, 자손번창, 사업대성, 건강 등 인간만사 모든 방면에 있어 길복을 초래하고 재앙이 침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뜻입니다.
- 한국 불교의 대표작인 12보살을 제작한 목적은 한국불교의 역사를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만든것입니다.
- 부처님의 신비의 힘은 12보살을 형상화한 보살 시리즈로 역사적인 멍기념품이 될 것입니다.



○ 규격…565m/m×504m/m

전문판매원 및 전국대리점모집

"12보살님의 은공으로
당신의 모든일이
만사대길 하시길 바랍니다."

- 12보살은 24K금도금으로 제작하였기에, 한국 고미술의 섬세한 터치가 엿보이는 금속예술의 독특한 멋과 미를 한층 더 높일수 있는 값진 선물로도 훌륭합니다.
- 특히, 12보살의 독특한 개성이 엿보이는 예술성을 장식용으로도 최고의 멋과 품위를 한층 더해드리며, 놀라운 소장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역사적으로 희귀한 이 작품을 보증서와 함께 소장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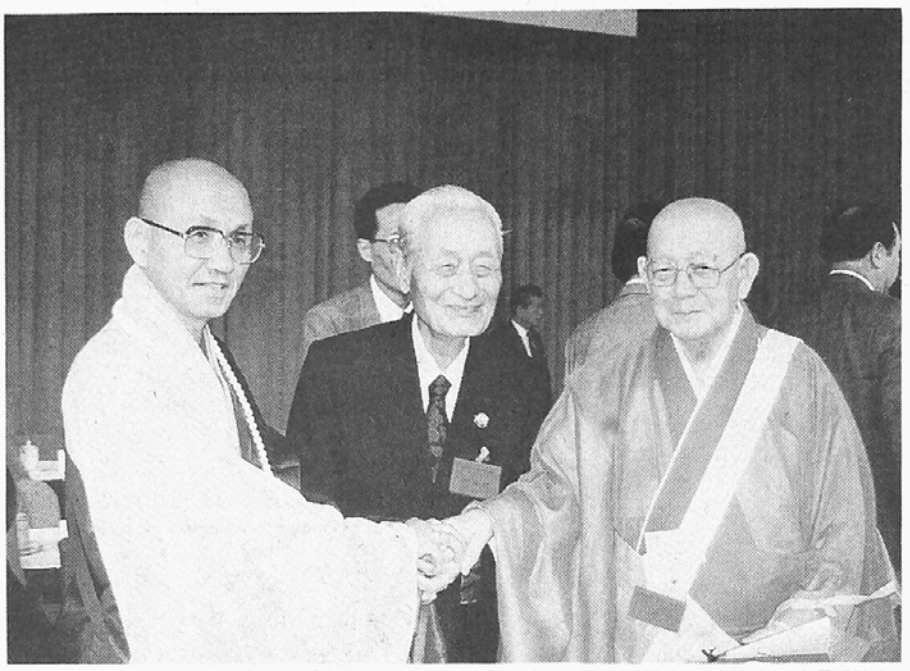
귀하신분께 값진 선물이 될것입니다.
장인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가 격: ₩ 330,000-.
은행신용카드 할부가맹점

국민카드 비씨카드 비자카드 LG카드

미래선물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코엑스전시장3층 3A-23호
TEL : (02) 551-3654~5
전화 : (02) 551-1314~5

동북아 평화의 새 지평 모색한 '북경의 3일'



◇한중일 3국 불교대표들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력과 교류를 결의했다. 지난 22일 북경 국제회의장에서의 월주스님(왼쪽) 조박초 중국불교협회장(가운데) 나카무라 일본불교협회장.

남북 불교정상의 역사적인 만남

차로 3시간 거리면 만날 수 있는 남북불교 두 정상이 수천리를 돌아 이국땅에서 마주 앉았다.

"관문점 통해 만났으면 더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4년전과 똑같이 건강해 보이십니다"

'91년 LA에서 열린 남북·해외불교지도자대회 이후 4년만에 다시 만난 월주스님과 박태호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이 마주 잡은 악수와 함께 나눈 덕담. 이번 접촉에서 월주스님의 방북이 공식 합의됨으로써 남북한 종교교류에 새 물꼬를 트게 됐다. 아울러 이날 법타·시현스님등 4스님 방북초청장이 전달됐다.

월주스님은 "관문점을 통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고 북쪽에서도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23일 법타·시현·설송스님과 찬을 겸한 두번째 모임후 일은 자연스럽게 풀려갔다.

오는 7월20일~8월5일이라는 월주스님의 방북시기가 구체화되고 빠른시일내 초청장을 보내겠다는 합의가 최종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 승려들이 방북한 적은 있으나 한국국적을 가진 승려의 공식방북은 해방이후 한차례도 없었으므로 월주스님의 방북이 실현되면 승려들이 직접 방문이 잇따를 것이다. 따라서 △불교병원 지원 △신계사(또는 유점사)등 북한불교 유적지 복원등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안들도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4·8 남북불교계 만남 정례화 △8·15후 LA에서의 남북·해외불교 지도자 연석회의 개최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



◇23일 오후5시 북경시 랜드마크호텔 서라벌 식당에서 개최된 남북 실무대표단 회의.

법타·시현 등 4스님에 초청장
"다음엔 평양·서울서 만납시다"

박태호 심상련 류성철 남북 각 3인이 모인 자리와 24일 정오 월주스님이 동석한 자리에서 북측은 "통일을 위해서는 갖가지 장애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관문점 법회개최 여하에 따라 월주 총무원장의 능력을 보겠다"는 말까지 하며 8·15 공동법회의 관문점 개최를 강력히 주장했었다. 그러나 조계종이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순수 종교목적으로 법 테두리안에서 추진해야 하는 입장을 확실히 한 만큼 북한측도 어쩔 수 없이 실현구체적인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오모임까지는 이같은 양쪽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12시에 시작된 모임이 1시간 30분만에 먼저 장소를 나선 월주스님과 그뒤 30분후 총총히 떠난 박태호위원장 등 북측대표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져 있는 것이 양쪽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날 저녁 6시 북경 만수공원앞 평양냉면집 옥류관에서의 만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예비실무대표단 회의에서 조계종은 북측에 2권의 조계종 법령집을 선물했다. 서로를 더욱 잘 이해시키려는 배려이다.

박태호위원장은 "서산대사와 같은 용기를 지녀야 무슨 일이든 성취된다"며 서산대사를 자주 거론하고 있어 서산대사를 북한불교에서 무척 숭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박태호는 누구인가

박태호위원장은 76세로 지난 1980년부터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직을 맡아오고 있다.

'학림(鶴林)'이라는 법명을 갖고 있으며 대선사로 불려진다. 해방전에 입산해 일본에 유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불련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 스리랑카, 몽골 등을 방문했고 지난 91년 10월 LA등 미국 여러 도시에서 남한 및 해외불교지도자들과 순회법회를 개최한 바 있다.

문화·정보 교류

인재양성 '한 목소리'

제1차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성과

한·중·일 3국 불교계의 우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공통사업을 펼치기 위한 상설기구가 창립됐다.

북방불교의 주역들인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불교 지도자들이 우의를 다지고 협력을 도모하는 대규모 불교회의를 개최한 것은 역사상 처음일뿐 아니라 협력과 교류를 통해 인류평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불교우호교류회의'는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국불교협회 조박초회장이 지난 93년 11월 일본에서 제안한 한중일 3국 불교간의 '황금유대'를 결성하자는 제안에 따라 수차례의 실무회담을 거쳐 결심을 맺게 됐다.

'황금유대'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후 다시 한국을 거쳐 일본어 전파되고 한국에서 다시 중국에 역영향을 주는 등 3국이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을 맺게 된 점과 관련 동북아의 문화적·정신적 연대의식을 지칭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반영하듯 한중일간의 불교교류 역사와 영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기조연설과 발표의 주류를 이루었다.

3국은 23일 폐회에 앞서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3국 불교교류 연락위원회를 상설 설치하기로 하고 △인재양성 △문화·학술 교류 △정보교환 △상호간의 참관 방문 △세계불교도들과의 교류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연락위원회가 연도별 교류협력 항목과 계획을 책임지게 하는 공동대처의 바탕을 마련해 '북경선언'으로 천명해 세계화해와 평화에 불교가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락위원회는 각 국에서 위원장 및 사무총장 1명씩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며 각국 연락위원회를 총괄하는 본부는 차기회의를 개최하는 나라에 두기로 함에따라 내년 불교교류회의가 열리는 한국에 연락위원회가 먼저 설치되게 되었다.

96년 서울에서 97년은 일본에서 교류회의가 열리는 등 3국은 순환으로 매년 개최하게 된다. △교사 및 유학생 파견 △교재교환 △불교 교류사 및 전문저작 정리 편찬 △불교문화전 개최 등을 추진하게 되어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못한 3국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불교를 통한 새 교류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에 이어 두번째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현수막에도 일본보다 먼저 기재되고 행사에서도 일본보다 앞서는등 한국불교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천태종이 절강성 천태산 국청사에 조사전을 건립하는등 그동안 한국이 꾸준히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한 성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세가지 점에서 아쉬운 점을 남겼다. 첫번째는 북한과 대만의 참여가 배제된 점이다.

중국의 반대로 참여가 배제된 북한과 대만까지 참여시킬 수 있는 방도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 향후 3국 불교회의의 과제이다.

또 이번 회의는 개최당일 전날에도 일정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기자회견 요청이 묵살당하는 등 주최측의 준비 소홀이 눈에 띄게 드러나 국제적인 행사에 서투른 중국측의 준비소홀이 옥의 티로 지적되고 있다.

너무 회의 개최에만 급급한 나머지 회의 전체경비의 상당부분을 한국과 일본 두나라가 부담한 것도 국가 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22일 열린 인민대회장에서의 만찬 식사비까지 1인당 60불씩 지불(대표단 30명은 제외)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야 했다. 30명의 공식 참가단외에 소수의 참가단만을 참여시킨 일본과는 달리 3백여명 가까운 관광을 겸한 참가단을 동참시킨 한국은 종교를 미끼로 한 중국의 상술에 '봉'이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받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교류회의가 한·중·일 3국 불교도의 화합과 발전에 진정한 기폭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종교가 취약한 중국에 새롭게 불교를 포교할 수 있고 종교의 자유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사상 처음 3국 회동…교류확대 '황금유대' 기대
한국불교 위상 재확인…북한·대만 배제 아쉬움

북경선언 요지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중국불교협회 조박초(趙朴初)회장이 1993년 11월 일본에서 제안한 한·중·일 3국 불교간의 황금유대를 결성하자는 새로운 구상에 대한 반응이며 3국 불교계의 오랜 세월에 걸친 공통의 염원이기도 하다.

본 회의는 한·중·일 3국 불교계 대표들이 불법을 홍포하고 중생의 이익을 도모한 경험을 일상적으로 교환한다. 또한 양국 또는 삼국간에 불교문화 교류, 인재양성, 정보교환 등 여러분야의 항목과 계획을 토의 결정하고 공동의 관심사나 기타 흥미를 갖는 문제들을 협의하며 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진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이에따라 3국 불교계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연락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앞으로의 교류 및 협력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인재양성=3국 불교계는 교사와 유학생을 상호 파견하고 교재와 경험을 교류하며 인재 양성기지를 마련하는등 상호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문화 학술 교류=선인들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또는 3국간의 불교문화학술회의를 진행한다. '3국불교 우호교류사'와 전문저작들을 정리 편찬하며 불교문화전을 거행하고 미래지향적인 불교문화 학술활동을 전개한다.

△정보교환=3국 불교는 북전(北傳)불교를 홍포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불교서적 간행물을 교환하며 불교활동의 중요 정보를 알려서 불교가 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한다.

△상호간의 참관 방문=계획적으로 상호 방문단을 조직하여 조사정(祖師庭)을 참배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한다.

△세계 불교도들과의 교류=세계 각국 불교도들과의 협력 단결과 우호교류를 강화하고 세계불교사업의 총체적인 발전과 아시아 및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공헌한다.

본 회의는 3국불교우호교류회의 제2차대회를 1996년에 한국에서 개최하고 제3차대회를 1997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협의 결정했다. 본 회의는 불교도들이 도덕향상, 환경보호, 생태균형, 자선구제, 전쟁반대 등 활동에 관심을 돌리고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호소한다.

노후를 편안히…

"보리수 마을에서 부처님과 인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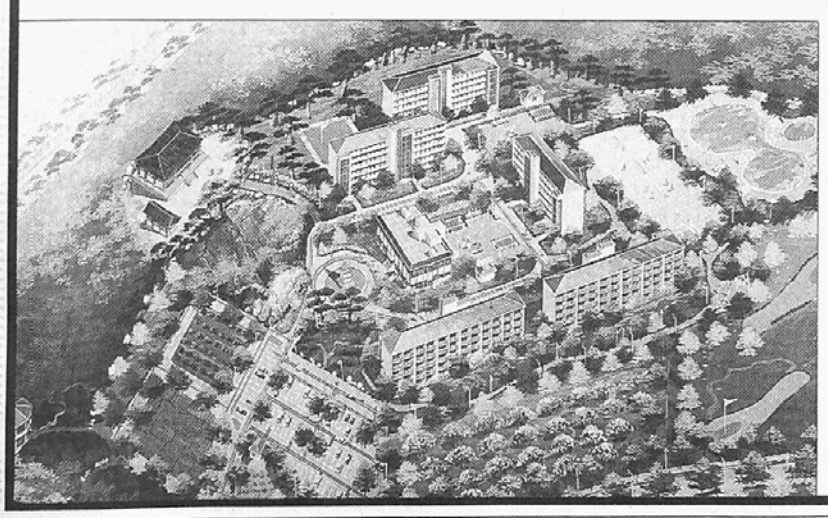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 이루어진 보리수 마을

◉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최첨단 의료시설과 진료서비스, 온천수와 바닷물이 조화된 해수사우나, 헬스시설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 노인들의 정신적 풍요와 몸의 활력을 위해 노인대학, 레크리에이션 교실, 과수단지 조성 등 노인들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관광휴양지가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여 가족과 친지들을 언제든지 즐겁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철저한 교육으로 전문능력을 갖춘 종사원들이 24시간 비상체제로 근무하여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봉사를 제공합니다.



보리수 마을 입주 설명회

■ 일시
- 1차 ➡ 6월 9일(금) 오전 10:00 ~ 12:00
- 2차 ➡ 6월 11일(일) 오후 2:00 ~ 4:00

■ 장소
- 조계사 총무원내 문화교육관 (범종루 옆)

※ 1, 2차 설명회는 이미 접수 마감되었으나 3차 설명회 개최가 6월 15일 전후로 예정되어 있으니 상담실로 전화·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4월 23일 80% 공정현장을 둘러보는 이사장 송월주 스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시범사업 보리수 마을
상담실 ☎ (02) 733-3363, 733-0640~2

"정신문화 함양의 터전 마련"

포교 · 교육사업 전개, 태고집 발간도



대륜불교문화연 설립
덕암 스님

"불교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 포교사업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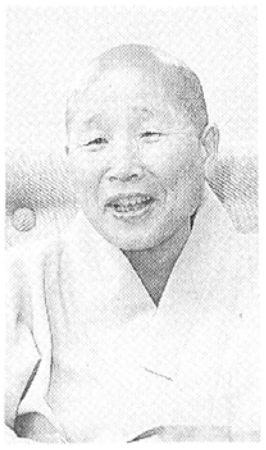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한 덕암스님(전 태고종 종정)의 첫 소감이다.

모든 종단 종파를 초월한 불법 연구를 통한 깨침의 생활화, 사회화, 호국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국정토를 실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은 최우선사업으로 태고보우국사의 '태고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향후 대륜불교문화원은 출판사업을 시작으로 불교정신문화강좌 국제간의 불교문화교류사업 불교지도자 육성 및 연수사업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정혜 삼학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수행이라고 말하는 덕암스님은 "대륜스님의 큰뜻을 받들어 전 문도들과 함께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을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륜 스님 〈양천구민체육센터 관장〉

"양천구민체육센터를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연스러운 포교도량으로 가꿔가야지요" 오는 6월1일 개관을 앞둔 서울 양천구민체육센터 관장 성상륜스님.

지난 3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양천구로부터 위탁운영을 허가받아 그 운영을 전국비구니회가 담당하게 되면서 지난 4월 관장에 선임됐다.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지하2층 지상3층 의 수영장, 에어로빅실, 헬스실, 사우나실, 소체육관, 대체육관, 탁구장 등을 갖추고 29개 강좌 70개반 3천5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센터다.

4월부터 본격적인 개관업무를 시작, 짧은 기간동안 준비하느라 아직 미비한 점도 많다는 스님은 "모든 직원이 일심으로 휴일도 잊은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관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21일에는 체육센터를 이용하려는 2만4천여명의 주민들이 몰려와 가입수를 신청, 구청과 경찰서 은행의 도움아래 컴퓨터로 회원추첨을 완료했다.

"유아수영교실, 효자수영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내집 드나들 듯 마음놓고 이용하는 지역문화체육공간으로 일궈갈 것"이라는 스님은 이와함께 지역선수발굴, 양성으로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양천구민의 자랑거리를 만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오랫동안 승가사에서 군 포교와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도 힘써온 상륜스님은 '천번생각하는 것이 한번 행함만 하지 못하다'는 가르침을 항상 되새기며 지역주민과 함께 뜻을 모아 재미있고 유익한 체육센터 운영을 여법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건강한 佛心 펴는 도량 일굴 터"

수영장등 29개 강좌 3천5백명 수용 … 회원 신청 쇄도

내일을 여는 불자



청교련 기획 간사 김 남 녀 씨

"감각적이고 강한 개성을 표출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칫 따분하고 지루함을 줄 수 있는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놀이문화의 개발이야말로 그들에게 불교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사랑을 키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 14기 17대 학생의장단(섭의분과) 출신으로, 청교련 기획간사의 소임을 야무지게 해내고 있는 프로그래머 김남녀씨.

10여년전 청교련과의 인연으로 대학졸업후 벌다른 갈등없이 청소년 교화사업에 뛰어든 김씨는 청교련 후배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친근한 선배이자 지도자다.

청소년 놀이문화 개발의 주역

불교접목, 국악캠프등 30여 기획프로 제작

"물론 교리공부도 중요하죠. 하지만 신세대들에겐 그들의 개성과 미래를 맘껏 표현할 수 있는 마당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김씨가 기획을 보조하고 진행한 프로그램들은 30여개에 달한다. 국악캠프, 청소년 종합예술 경연대회, 청소년 윤리회복 실천대회, 약물남용 예방캠페인등. 김씨가 개발하고 실행한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에겐 꿈을 맘껏 펼 수 있는 절호의 장이다. 그러하기에 그 30여개의 프로그램은 이제 정착이 되고 현실화돼 타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교련의 조달현국장은 김씨를 '청소년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불교계의 일꾼'이라고 귀띔한다.

청소년들에게 언제나 언니처럼 누나처럼 대화하기를 자처하는 김씨는 "교계가 청소년 포교사업에 너무 무관심한것 같습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상투적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은 우리 미래의 주역이자, 주인입니다. 그들이 제 역할을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맘껏 뛰어놀고, 학습하고, 꿈을 펼 수 있는 마당이 마련되야 합니다"고 말했다.

청소년 교화 · 선도에 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김남녀씨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과 불교에 대한 남다른 열의로 바쁜 손길을 오늘도 역시 늦추지 않고 있다.

〈도필선 기자〉

교 차 로

미국 유학 떠난 현능 스님

서울 상계동 아파트단지에서 메마른 도시인들의 가슴을 불법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주었던 박현능스님(전 사천왕사 주지)이 지난 15일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지난 6년간 성공적인 포교당 운영으로 불교대중화를 이끌어온 장본인의 한사람이기도 한 스님은 "한국불교도 이제 환경자체가 변해야 할 시기에 접해있다"고 말하고 "세계종교로서 불교가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국불교가 너무 고립되지는 않았나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라 생각, 내 자신부터 변하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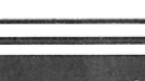


스님은 출국에 앞서 지난 13일 그동안의 법문을 모아 수필형식으로 담은 '생명의 저울' 출판기념회 및 송별회를 가지기도 했다. 스님은 떠나셨지만 사천왕사에서 스님이 실행해온 불교의식의 한글화 문제를 정리한 '한글법회의식집'(가칭)과 불교입문자들을 위한 번역서 '불교를 읽는법'(가칭)등이 곧 출간될 예정이다.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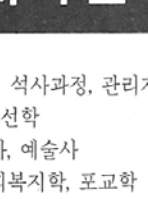
내일 위해 공부 결심 '생명의 저울' 등 펴내

마산 금강정토사서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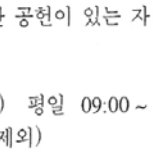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은 오는 6월10일 마산 금강정토사 수효법당이 주최하는 초청법회에 참석 법문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발대식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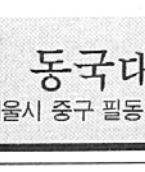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9일 오후1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시민단체공동 정책캠페인 추진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 "6. 27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법화경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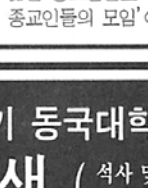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은 오는 6월2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2시에 한국불교발전연구원에서 법화경을 강의한다.

차의 효능 · 다도 교양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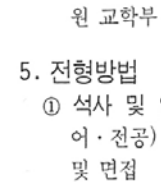
지허스님(선암사 주지)은 지난 17일 오후2시 전남도청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차의 효능과 다도에 관한 교양강좌를 실시했다.

사천왕사 주지에 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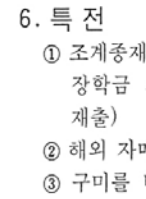
성덕스님(불교자원봉사회 회장)은 지난 3월15일 사천왕사의 주지로 부임했다. 스님은 앞으로 상계동 지역포교에 앞장설 계획이다.

불우노인 2천명에 경노잔치



혜자스님(도안사)은 지난 22일 관내 불우노인 2천여명을 동막골 유원지로 초청, 제14회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이화여대 가정관서 법문



법현스님(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장)은 지난 16일 이화여대 가정관에서 열린 동대학 불교학생회 초청강연서 '원죄인가 업인가'란 불교의 인간관을 주제로 법문했다.

'열린 종교인들의 모임' 발족

각인스님은 지난 27일 정식 발족한 종교일치운동을 위해 젊은 종교인들로 구성된 '열린 종교인들의 모임'에 참가했다.

동문언론 · 연예인 간담회



송석구교수(동국대 총장)는 오는 30일 오후6시 타워호텔넥스룸에서 동문연예인 간담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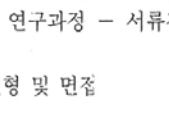
또한 6월7일 오후7시 프라자호텔에서 동문언론인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도철학회 학술 발표회



원의범명예교수(인도철학회 장)는 지난 24일 동국대에서 '제5회 인도철학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알라야식설과 무의식설에 대한 비교고찰;유식불교와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등 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자연호보 · 인성교화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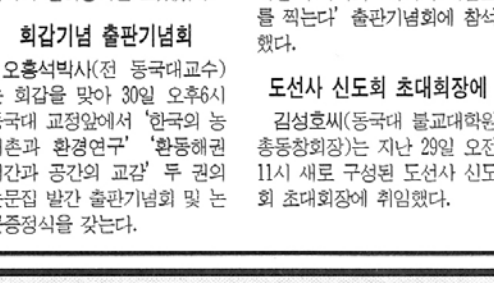
목정배이사장(대한불교 법사회)은 6월4일 김천 직지사에서 자연보호및 인성교화 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에는 전국 25개 포교단체 5백여명의 법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02)264-1827

문화재연구소 학술회의



장경호소장(문화재연구소)은 지난 24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해외소재 우리역사 관련 문화유적의 현황과 보존'학술회의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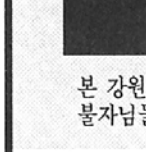


민족화합통일 염원 대법회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의장 법혜스님)는 지난 19일 오후2시 부산사직실내체육관에서 '민족화합통일염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이기택 민주당총재, 노무현 민주당 부총재, 민자당부산지구위원장 김정수의원, 강창성의원, 김기재 부산광역시장등 여야정치지도자가 대거 동참해 7천만 민족의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해방후 노동구조…' 발표



이각범교수(서울대)는 지난 26일 열린 한국사회학회·한국사회사학회 공동주최 광복5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해방후 노동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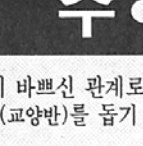
탄허종사 11주 추모법회

이봉모씨(전 국회의원)는 지난 22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된 탄허 대종사 11주기 추모제에 참석 헌향했다. 이 전 의원은 탄허종사의 속가제자로 입적할 때까지 탄허종사를 모셨었다.

회갑기념 출판기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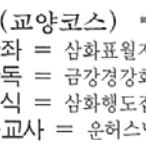
오홍석박사(전 동국대교수)는 회갑을 맞아 30일 오후6시 동국대 교정앞에서 '한국의 농어촌과 환경연구' '환동해권 시간과 공간의 교감' 두 권의 논문집 발간 출판기념회 및 논문증정식을 갖는다.

보건정책 세미나서 강연



주양자의원(민자당)은 지난 24일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보건 및 환경 정책세미나에서 '보건정책 입안과 입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제야…' 출판기념회 참석



안동일변호사(재불련 상임회장 · 4월회 회장)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타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 박종철군 사건 수사비화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도선사 신도회 초대회장에

김성호씨(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새로 구성된 도선사 신도회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게시판

▲통일기원 수륙대재=양평불교사암연합회(회장 일각)에서는 6월2일 오전11시부터 양평군체육공원에서 서암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남북통일기원 호국영령 수륙대재를 봉행한다.

▲무료법률상담=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명태)은 매월 넷째주 월요일마다 상담실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051)893-5034

▲불교경전 한문교실=맑고 향기롭게부산, 경남모임(회장 이홍교)에서는 무료 불교경전 한문교실을 열고 불자들을 기다린다. (051)867-8606~7

▲정기법회=부산불교거사림회가 30일 오후7시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참다운 신행'을 주제로 정기월례법회를 개최한다.

화혼 한명우 기자(본사 취재1부)는 오는 6월4일 오후1시 천안 목화예식장에서 장경희양을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0417)62-7217

1995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신입생 (석사 및 연구과정 / 관리자 과정) 모집

1. 모집학과 및 전공 : 석사과정, 관리자과정
① 불교학과 : 불교학, 선학
② 불교사학과 : 불교사, 예술사
③ 불교사회학과 : 사회복지학, 포교학

2. 지원자격
① 석사 및 연구과정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 수료자.
② 관리자 과정 : 조계종의 대덕 법계품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 포교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3. 원서교부 및 장소
95. 6. 1(목) ~ 6. 15(목) 평일 09:00 ~ 17:00까지(토 · 일 · 공휴일은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① 석사 및 연구과정 : 95. 6. 22(목) 14:00 불교대학원 교학부
② 관리자과정 : 95. 6. 23(금) 13:00 불교대학원 교학부

5. 전형방법
① 석사 및 연구과정 : 석사과정 – 필기(영어 · 전공) 및 면접 / 연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② 관리자 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 전
① 조계종재적승려, 공무원 및 교직원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승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재출)
② 해외 자매대학 유학 및 연수참가 기회부여
③ 구미를 비롯한 각국 자매교와 학술교류 및 상호방문

7.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문의전화 : 260-3097, 3098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학부)

봉선사 불교전문 통신강원
수 • 강 • 안 • 내

본 강원은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들과(전문반) 재가 불자님들의 불교공부(교양반)를 돕기 위하여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강원제도입니다.

1. 전문반(강원코스)
○ 사미과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 사집과 = 도서, 절요, 서장, 선요, 대승백법명문론
○ 사교과 = 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 의전과 = 기초의식(도량석, 종송, 예불의) 상용의식(불공, 시식, 관욕, 대령)

2. 교양반(교양코스)
○ 교리강좌 = 삼화표월지, 불교의 깨묵
○ 경전강독 = 금강경강화, 운허스님의 능엄경강화
○ 교양의식 = 삼화행도집
○ 교양불교사 = 운허스님의 불교통사, 전등록 초

3. 수업요령
① 입학금 = 3만원(재학기간 유효)
② 수업료 = 2만 5천원
③ 교재(카세트테이프)는 매월 8개씩 월초에 보내드림.
④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원에 문의 바람.

■ 문의처 : ☎ (0346) 68-1957 (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 月 雲

"마음으로 흙을 빚으면 세상 담는 그릇 탄생"

산문밖의 선禪

도예가 이 은 구 씨



"도자기라는 것은 본래 그대로이지요. 특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체 망상을 던져버리고 오직 일념으로 그릇을 하나 하나 빚는 것이 바로 도공들의 선이 아니겠습니까."

망상 버리고 일념으로

오직 분청만 만들수 있다면 무엇하나 부럽지 않다고 말하는 청파 이은구씨(54, 도예가)는 문뜩 새로운 구상이 떠오르면 새하얀 작업복을 차려입고 요장에 앉아 시간 공간조차 잃어버린 채 물레를 돌리고 문양을 새겨넣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다.

한번 자리를 틀고 앉으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는 진지한 모습 속에서 웅골찬 장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세속의 모든 욕망을 훌훌 벗어버리고 출가하는 수행납자처럼 이씨도 오직 우리의 것(분청사기)을 되찾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도공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흙(地)과 물(水)과 불(火)과 공기(風)와 끊임없는 씨름을 하고 있다.

흙을 빚고, 문양을 새기고, 불을 지펴 만들어진 분청사기들을 다시 깨어버리는 일련의 작업들을 수없이 반복했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일체가 다 존재하고 마음으로 일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흙을 다져 그릇을 빚고 가다듬는다는 것은 진실한 자신의 마음을 빚고 가다듬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족정서 장인정신 담아

돈독한 불심과 끈질긴 장인정신으로 33년째 분청사기만을 고집하며 수많은 흙을 다져 그릇을 빚어온 이은구씨에게 수행이란 따로 없다. 완벽한 분청의 제작을 위해 행주좌와하는 생활이 곧 수행이고 선이다. 30여년간 빚어온 각종 분청사기들은 그의 수행산물이다.

"분청은 매우 자유분방합니다. 어떤 틀에 의해서 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양을 모두 생략할 수 있고 때로는 자연도관을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토양에서 선조도공들의 손에 의해서 창조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세심하면서도 끈질김의 조화, 그속에서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보았고, 장인정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러한 장인정신은 분청사기 제작의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이씨가 추구하는 문양은 전통적인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 사군자를 현대적 감각으로 변형시키기도 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단순화시켜 독특함을 자아내 보는이로 하여금 환희심을 저절로 일게 한다.

더욱이 정교한 무늬와 오묘한 빛깔로 탄생된 분청사기는 은은한 녹색의 차와 함께 어우러지면 차를 마시는 대인들로 하여금 한층 차향을 깊게 해주며 다도삼매에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분청의 신비한 색·독특한 문양 찾기 33년
행주좌와 참선하듯 흙·물·불·바람과 씨름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꽃피운 고려와 조선시대의 선진 도자문화를 바탕으로 잉태한 분청사기는 독창적이고 단순한 선과 우리 민족의 정서가 가득 담겨져 있어 우리 곁에 친근하게 다가온다.

"분청사기의 옛날 기법, 색깔, 문양, 기형 등을 현대감각에 맞게 조화시켜 신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것으로 재구성한다든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현대 사람들이 옛도자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사군자, 십장생등을 기본문양으로 구름무늬 포도등 자연을 소재로한 그의 작품은 특유한 색감과 조화를 이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는 더 유명해 특별전 개인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정도다.

천고의 신비한 색과 독특한 문양개발로 인해 빛어진 그의 작품은 특히 전통기법에 의하면서 현대적감각을 맘껏 살린 분청사기라는 점에서 호응도가 높다.

97년 이천서 세계도예전

"도자기는 꼭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지니지 않아도 장인들의 정성어린 피와 땀이 담겨진 도자기를 항상 옆에두고 보면 자연히 소양이 넓어지고 만든사람의 숨결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씨는 도자기를 처음대하는 사람들이 고가의 작품이나 유명한 사람들만의 작품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공들의 마음과 보는 감상기법이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도자기를 올바로 보는 방법이라고 귀띔한다.

"우리고유의 도예문화가 임진왜란으로 인해 오히려 일본 도예문화가 역수입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민속명절때 행해졌던 다례문화, 각 사찰에서 실시되는 차문화등을 찾아 옛 기법을 더욱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서울 올림픽당시 유근영, 지순택, 황규동, 한익환, 안동호씨와 함께 한국대표작가 6인전을 개최, 한국분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린바 있는 이씨는 오는 97년에는 '세계도예전'을 이천에서 실시해 우리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이천에 오면 세계 유명작가의 작품을 다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가랑비가 초여름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가운데 도공 이은구씨는 새로운 작품구상을 위해 요장에 홀로 앉아 깊은 명상에 든다.

경기 이천=김중근 기자



삽화 · 이기선

생명 사랑하는 어린이로 키우자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㉘

어른들 상술에 멍드는 아이들

아이들은 어른을 닮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그들의 행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자기들 마음먹은데로 행동한다. 어른들이 멋대로 행동하는데에는 그림자가 생긴다. 아이들이 어른을 닮듯 아이들은 그 그림자를 자연히 밟게 된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정직하고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 그림자를 보이지 않게 살 순 없지만 그 그림자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어른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막되게 살면 안된다. 막된 행위를 하면 아이들이 바로바로 배워서 재미로 하기 일쑤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제 자신의 행위를 잘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아이들의 놀이도 지켜 보아야한다.

요사이에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 많기도 하다. 국민학교 아이들이 군것질하는 과자만 봐도 그렇다. 옛날 우리 어릴적에는 엿이나 강정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그것이 꽈배기 풀빵 붕어빵, 또 뽑기로 변화하더니 수년전부터는 초코렛, 빼빼로가 판을 친다.

지렁이과자 사먹다니

이것은 경제적 향상에도 원인이 있지만 제과회사의 상술에 의하여 어린이의 취향이 바뀐데 큰 원인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상품들이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어느 나라가 만든 과자인지 알 수는 없어도 혈오식품을 먹고 있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거미과자, 지렁이과자, 흙과자를 먹고 즐기고 있는 것이다. 징그럽고 흉물한 생물의 모형과자를 서로 다투어 사먹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무언가 이상 징후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은 정상적 농산물인 과일이나 채소를 먹도록 훈습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 생명, 곤충, 동물, 나무,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앞 가게에서 심지어는 경쟁의 식까지 발분돼 지렁이, 거미, 흙과자를 즐기고 있으니 말이나 되는 것인가. 순수하고 자상한 인격체가 형성되도록 어른들은 가르치고 지도하여야 한다.

물은 한결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소가 마시면 젖을 만들어 내고, 독사가 마시면 독을 만들어 낸다. 예가 합당하지 못했을런지는 모른다. 아이들이 지렁이나 거미를 먹는다면 여타의 생물도 마구 잡아먹을 수 있는 잡식증후증이 발생할지 누가 장담하랴. 이 잡식증후증이 살생의 길로 접어들게 할지도 모른다.

어른이들은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늘에 걸려있는 일곱색 무지개. 이 얼마나 신비로운 하늘의 그림인가. 이 그림을 갖고 싶어하는 자연스런 선망이 가슴에서 싹터 올라야 한다. 사람은 자연속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생명에서 환희를 느끼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어린이가 흉물스런 곤충, 벌레의 젤리과자를 스스럼없이 마구 잡아먹는 연습을 하는 것은 어딘가 우리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일탈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란 말이 있듯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 내는 도덕적 생명애를 가진 아이로 길러야 한다.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들어 내는 것은 나 아닌 모든 생명은 중요치 않다고 하는 생각에서 빚어진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조그마한 미물이라도 신비하고 기이하게 보여야 한다. 국민학교 앞길에 새끼병아리를 보고 감격하는 저 맑은 눈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병아리 기르는 동심을

'병아리야 곱게 잘 자라야 한다'는 염원으로 한 마리를 사다가 가만가만히 길러보고 싶은 마음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간직하여야 할 마음은 저 생명과 함께 놀고싶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하여 어린 병아리에 좁쌀도 주고 물 한모금 먹여주고 하는 마음, 이것이 생명을 아껴 사랑하고 귀히 키우고자하는 행위이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순수하고 고운 마음이 본래부터 있다. 천진난만하고 또한 무구한 것이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영악하게만 되었는가. 어른들의 그림자가 때가 묻고 일그러져 있는 것이 아닐까. 몇푼의 돈을 벌려고 이상야릇한 상술의 꾀를 내어 아이들의 마음을 멍들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지금이라도 어린아이들이 생명살상의 길로 첫발을 내딛는 저 아이들에게 강한 빛을 발하는 적신호를 보내야 한다. 또한 어른들은 무관심과 소홀한 감시에 대한 경고와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동심천심

법화산림법회 안내

법화경은 적극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누구나 보살이 되어 부처님의 이상을 현실 속에 구현하는 불자가 되라고 합니다.

법사 : 현해 큰스님(월정사 주지)

시간 : 불기 2539년 6월 2일(금) 오후 2시부터

장소 : 본 연구원 법당

문의 : Tel (02)736-6202, Fax (02)736-6205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양념의 옛말은
'약념(藥念)' 입니다.
약으로 알고 썼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김치 속의 양념들은
하나 같이 藥 중의 藥입니다.

약이 되는 우리 음식이야기/김치②

김치의 비밀은 양념 속에

김치 특유의 맛과 약리작용, 그 비밀은 양념과 발효에 있습니다.

단군 때부터 먹기 시작한 마늘은 강력한 제독·항암 작용을 하며 강장제나 청혈제로서의 효능도 탁월합니다. 마늘 속의 '알린'이라는 성분은 마늘 고유의 냄새를 나게 하는 유황화합물로서, 김치의 발효과정에서 효소의 작용으로 알리신이 됩니다. 이는 강력한 제독·항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성분을 추출한 항암약품이 개발돼 있습니다.

스코르디닌은 강장효과를 발휘하는데, 쥐 실험을 한 결과, 그것을 주사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4배나 활동력이 더 강해질 정도입니다.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은 인체에 유해한 콜레스테롤과 그 밖의 독성물질을 배출하고 지방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기를 고춧가루로 양념하여 먹었던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생강은 변질되는 물질을 재생하는 효능이 있어 예부터 약으로 써왔으며 파 또한 중금속을 제거할 정도로 강한 해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양념들이 무나 배추 속에 침투하여 그 속의 약성과 결합되어 훌륭한 음식이자 약이 됩니다.

이처럼 채소와 양념이 한데 어우러져 발효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소금입니다. 채소에 간을 해놓으면 탈수작용, 살균작용, 항균작용, 제독작용 등 소금의 약리작용이 일어납니다. 채소 속의 수분을 빼내 양념성분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고, 채소의 독성을 중화시키거나 배출시키며,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의 번식은 억제하고 유익한 미생물의 발육은 촉진시켜 줍니다.

김치를 약이 되게 하는 열쇠는 소금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질 좋은 소금을 써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든 세계 최고의 소금

역사가 시작된 뒤로 이보다 더 좋은 소금은 없었습니다.

인산 김일훈(1909~1992) 선생이 개발한 신비의 소금 인산죽염은 80여 가지 미네랄이 살아 있는 서해안 굵은 소금을 왕대나무통 속에 넣고 지리산 기슭 황토로 봉한 다음 송진불로 굽기를 아홉 번, 마지막 아홉 번째 가서는 1천도 이상 센 불에 녹여낸 약소금입니다.

세계 최고의 소금으로 김치를 담그세요.
아홉 번 구운 인산죽염.
세 번 구운 김장용 인산죽염.

150년을 잇는 '身土不二 건강'의 맥

통신판매 / 인산가 736-3171

전화를 주시면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경허스님 출생년도는 1846년"

김지견박사,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 등 오류 지적…'경허당 散考' 서



◇경허스님



◇김지견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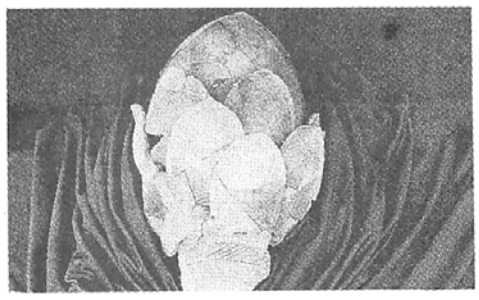
1918년 간행된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불교통사〉가 〈경허집〉등 객관적 자료의 검증없이 세간에 퍼져있던 경허(鏡虛)에 대한 부정확한 평판만을 근거로 기록했다는 주장과 함께, 그간 알려진 경허의 출생년도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신문화연구원 김지견교수(불교학)는 최근 발표한 논문 '경허당 산고(鏡虛堂 散考)'를 통해 "만약 이능화가 한암(漢岩)이 1931년에 탈고해서 1942년에 출간한 〈경허집〉을 읽고, 경허스님의 사자(嗣資)들인 침운(枕雲) 혜명(慧月) 만공(滿空) 한암 등이 지닌 인품과 종지(宗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보고자 노력을 기울였다면 통사의 경허장(鏡虛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술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한 "경허의 탄생년도는 한암이 찬(撰)한 행장(行狀)의 경우 11년을, 만해찬(萬海撰) 약보(略譜)의 경우 3년을 각각 소급하여 비정(比定)한 병오년(丙午年; 1846)이 된다"고 밝혔다.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세상의 선류(禪流), 다투어 이(경허의 선풍)를 본받아 심지어는 음주식육(飮酒食肉)이 보리와 무관하고 행음행도(行淫行盜)가 반야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창언(倡言)하고 이를 대승선(大乘禪)이라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경허의 사승(師承)과 무관한 불법자(沒法子)들이 유행시킨 폐풍(弊風)을 '세전소위(世傳所謂)'니 '세인위(世人謂)'니 하면서 아무런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

김교수는 또한 경허의 생년이 1846년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경허가 1900년에 찬술한 〈서룡화상행장(瑞龍和尙行狀)〉 1편에서 경허 본인이 그해 '연광(年光) 55'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재경 기자



◇'러' 크라스키노 성지내 건물지에서 출토된 연화장식.

연해주 유물 불상·연화문 상륜 치미
발해문화 우수성·독창성 입증

공주대 이남석 교수 발표

러시아 연해주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크라스키노의 발해유적에서 토제 연화문 상륜(上輪)과 불상 치미같은 고급유물이 나오는 등 그 문화적 독자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발해문화의 높은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지난 2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연구소(소장 장경호) 주최 '해외소재 우리 역사 관련 문화유적의 현황과 보존' 세미나에서 이남석교수(공주대 사학과)는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유적'이란 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와관련 토론자로 나선 한규철교수(경성대 사학과)는 "크라스키노지역은 강력한 해상세력이 상존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기와등을 현지에서 직접 만든 점과 동아시아 어디에도 없는 토제 연화문 상륜과 불상 및 치미 같은 고급유물이 나오는 사실은 그 독자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파괴 '합법 요인' 53%

김종원교수 '우리나라 국립공원…' 서 밝혀

행정기관의 개발위주 법·제도 제정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명대 생물학과 김종원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생태학적 구조분석과 보전전략'에 의하면 우리나라 15개 국립공원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교란요소 32가지 가운데 53.1%인 17가지가 합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생태계를 심하게 파괴하는 강(强)교란요소 8가지 가운데 합법적인 것은 조림, 경작 및 댐, 스키장, 골프장 건설등이었고 비합법적인 것은 밀렵, 산불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적 교란요소'는 사찰건설, 산나물 채취, 무속행위, 소음과 스키장, 골프장 등 6가지 였다.

아울러 지나치게 많은 등산객수도 중요한 교란요소로 나타났는데, 사찰을 찾는 신도들은 '합법적인 약(弱)교란요소'로 나타났다. 생태계에 미치는 사찰의 영향과 관련, 김교수는 "사찰건축은 필요한 한도내에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공원내의 각사찰은 절을 찾는 신도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여, 극락상징 대웅전 모형"
이두현교수 주장

"5색구름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대웅전은 극락세계를 상징한 것이고, 그 대웅전을 닮게 만들어진 상여(喪輿)는 망자(亡者)를 극락세계 연화대(蓮花臺)로 인도하는 양택(陽宅)으로 꾸며져 그 환생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두현 서울대명예교수(민속학)는 지난 19일 열린 학술원(원장 권이혁) 회원세미나에 참석, '한국의 전통 목우(木偶)'란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교수는 "우리나라 상여에 나타난 상징들은 우리 고유의 무속과 함께 유불선의 융합을 나타낸 상징들로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과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에 대한 처방답변이 추상적…

문 지난 26호에 나온 '어린 애가 무서운 병에 걸려'라는 제목의 문답을 보고 답답한 심정 금할 길 없어 돕고 싶은 생각입니다. 답변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울 길은 없겠는지요.

〈군종병·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호정사〉

답 매호마다 아픈 사람들의 하소연이 있어서 저 자신도 피눈물이 납니다.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없어지는데 필요하다면 제 몸이 가루가 되어도 좋습니다.

딱한 사람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매번 말씀드리듯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샘물을 길어 마시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성제를 믿고 팔정도를 믿고 십이인연을 믿어야 합니다. 그밖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어느 대목 하나라도 한 데로 떨어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경전의 구절구절이 그대로 진리의 설파입니다. 그러니 우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게 '그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느어느 경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더라'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알음알이에 불과하지요.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믿는 것이란 내 몸의 세포 하나 하나 남김없이 부처님 말씀으로 충만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십억, 아니 수조(兆)개에 이르는 모든 세포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이다'라고 확신할 때 그 믿음은 완벽하다고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무친다고 할까요. 아무튼 믿음이란 생사결단을 하고 들어갈만큼 철저해야 합니다. 흔히 하기 좋은 말로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지요.

믿음이야말로 온갖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몸 아픈 사람이 생사를 내던질만큼 믿고 들어갈 때 거기엔 반드시 크나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무슨 계산할 수 있는 결과를 뜻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목숨 떼어놓고 들어가는 믿음에 어찌 눈 앞의 결과를 운운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나는 믿는데 왜 잘 안되느냐?'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믿는게 못되고, 결과나 따지는 계산에 불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가르침에서건 '나' '나의 것'을 전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제하지 않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정하셨습니다. 무아(無我)를 설파하셨지요.

질문하신 분의 따뜻한 마음씨는 참으로 소중합니다만 내가 왜 추상적인 말을 했는지, 실은 추상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걸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만 그 '추상적'이라는 '나의 분별·사량'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 시조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했는데 많은 불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 왜 잘 풀리지 않느냐를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를 하는데는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어야 말길 수 있고 말겼으면 그게 놓은 것입니다. 믿고 놓고 조용히 지켜 보세요.

지켜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으니 지켜본다는 생각을 짓지 마시구요.

(편집자: 26호 질문자의 주소는 번지수 불명이라서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문 스님, 저는 왠지 불행하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이다지도 힘들게 사는가 하는 생각에 잠을 못자는 날도 많고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서울시 양천구〉

답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더라면 글을 읽는 다른 이에게도 참고가 될텐데 없으니 아쉽군요.

행복이란 자기가 만든 것이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 아니지요? 누가 가져다 준다거나 돈·건강·명예 따위의 조건이 갖춰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번뇌이구요.

슬픈 생각을 하면 슬프게 살고 옹졸한 생각을 자꾸 하게되면 삶도 옹졸해 질 것은 분명하지요.

세끼니 겨우 때우는 형편이라도 오손도손 화목하면 행복할 것이고 산해진미를 차려 놓아도 아옹다옹하며 살면 편치 않을 테지요. 가난하지만 부자로 사느냐, 부자지만 가난뱅이로 사느냐 하는 문제는 각자 마음먹기에 달렸지요.

그러니 마음을 풍요롭게, 늘 따뜻하게, 누굴 탓하거나 조건 따지지 않고, 잘났다 못났다 하는 생각도 다 내려놓고 현재의 위치,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매사를 복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세간의 행복이란 상대적인 것이니까 내 한 생각 내 마음대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은 내 몸 안에, 내 손 안에, 내 생각 속에 있지 먼 데, 남의 손에,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점 잊지 마세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一葉紅蓮出海東
(일엽홍련출해동)
碧波深處現神通
(벽파심처현신통)
昨夜寶陀觀自在
(작야보타관자재)
今朝降赴道場中
(금조강부도량중)

한떨기 붉은 연꽃 해동에서 솟으니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을 나투시네.
어제저녁 보타산의 관세음보살님이
오늘 아침 도량안에 강림하셨네.

통도사
관음전(觀音殿)

해설 관음전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전각이다. 천수천안, 관자재, 11면33응신등은 모두 관세음보살님을 뜻하는 말들이다.

통도사 관음전은 조선조 영조대왕 원년(1725)에 용암(龍岩)대사에 의해 창건됐다. 위치는 불이문과 대웅전의 중간. 전내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은 왼손에 연꽃을 들고 있다.

관세음보살 신통 자재력 찬미

그래서 이 주련의 첫구절에 '동해에서 솟은 연꽃'이란 표현이 있는 듯하다. 물론 관음신앙과 바다와의 밀접한 관계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은 강화도 전등사와 남해 보리암, 양양 낙산사를 중심으로 발달된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 주련의 내용은 한마디로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과 신통력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는 첫 구절에서 두번째 구절까지 한결같이 흐르고 있다. 동해에서 솟은 연꽃, 그것은 하나의 꽃이 아닌 관세음보살님 자체를 상징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푸른 파도 깊은 곳에서 나투신 신통력도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에 대한 찬탄이다.

어제 저녁 보타산의 관세음보살님이 오늘 아침 도량안에 강림하셨다는 것도 신통자재의 극단적 표현이다. 보타산은 관세음보살님의 주거처이다. 굳이 장소를 든다면 인도 남쪽 해안이라 전하지만 상징성이 강하다. 그곳의 관세음보살님이 도량(통도사)에 나투셨다는 것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뛰어 넘어 '현재의 우리들에게 나투시는 관세음보살'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를 초월했다는 것은 광대무변의 법계를 두루 비추이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표현이며 천수천안의 한량없는 자비행의 표현이기도 하다.

〈안동 경안중 교사〉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아파 디포 브하바(appa deepo bhava) ……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행 잔고를, '나는 조약돌로 본다.'고 붓다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갖가지 조약돌을 모으며 놀고 있는 어린아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와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망쳐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핑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유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이경옥 옮김
신국판 전2권 / 각권 7,500원

신행수첩



◇ '불자가정' 스티커 붙이기 운동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사찰에서도 불자들에게 스티커를 나눠 주고 있다.

'불자가정' 부착 확산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붙이기 운동이 각 사찰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더욱 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1천매 이상 주문에 대해 각 사찰, 단체의 이름을 스티커 전면에 인쇄해 제작하기로 한데 따른 대량주문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1천매 제작 보시금은 1십만원입니다. 또한 낱장에 대한 주문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본사는 우편, 전화, 팩시밀리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우편발송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천매 이상 대량주문 쇄도
전화·팩시접수 우편발송도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천매이상: △동국대(총장 송석구) △본원정사(주지 대련) △대구 수덕사 △경기 용현사 △월간 「해인」 △인과선원(주지 정덕) △문수사(주지 혜정) △도솔암(주지 혜산) △광명선원(주지 초격)

천매이하: △보연사(주지 혜법) △지보사(주지 행운) △안산불교신도회 △수산여래암(주지 견허) △경기 사자암 △봉림사(주지 지웅) △경북 삼천사 △이동포교원(주지 혜등) △연화사(주지 김명수) △용화사(주지 선혜) △천경사(주지 법일) △부산 법륜사 △충남 봉흥사 △대성사(주지 보각) △곽호택 △오항해 △박학수 △배두홍 △이재영 △박영옥 △박승래 △나용기 △엄영주(불교총지종) △윤정현 △정영회 △박희군 △김은희 △정진영 △정경용 △김영호 △김도균 △허기림 △정순헌 △곽영만 △김순임 △박옥순 △최인봉 △어창훈 △심업 △백수동 △강희순 △박정식 △박관엽 △김정애 △김현정 △황봉기 △조승태 △박희철 △유영호 △김홍용 △최장순 △이재영 △김정애 △조인세 △왕원정 △서남교 △이성년 △유혜자 △김해수 △정미숙 △황학봉 △김정묵 △김찬우 △김강자 〈무순〉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 금 주: 현대불교신문

전 화: 737-8881, 722-4162
팩 시: 737-0698

현대불교·한국불교종단협의회·대한불교진흥원

머리엔 지혜 가슴엔 법열
일산법등사 가족법회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사이에서 우리의 정서는 메말라가고, 배움에 대한 열의도 이기적이기 마련이다. 이런 우리들의 가슴에 봄비를 촉촉히 적셔줄 강의와 함께 가족법회를 마련하는 사찰이 있다.

매주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전10시면 어김없이 가족법회를 통해 법열을 나누는 일산 법등사(주지 혜종스님)는 첫째 일요일에는 박광서교수(서강대 물리학)의 '불교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를, 셋째 일요일에는 신규탁교수(연세대 철학과)의 '선사들의 이야기' 강의를 마련,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지혜로움을 함께 전한다.

햇볕도 좋고, 바람도 좋은 화창한 봄날에 사찰을 찾아 자기만의 발원과 강의를 들으며 우리들의 머리와 가슴에 온기를 불어 넣는 것도 바쁘게 돌아가는 오늘날에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0344)901-0877

작은 사랑이 전하는 광명
점자용 녹음도서 수집

한사람의 작은 수고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소박한 행복이요 기쁨일 것이다. 장애인포교를 위해 수화반과 점자반을 운영하고 있는 원심회가 녹음도서를 보내줄 분들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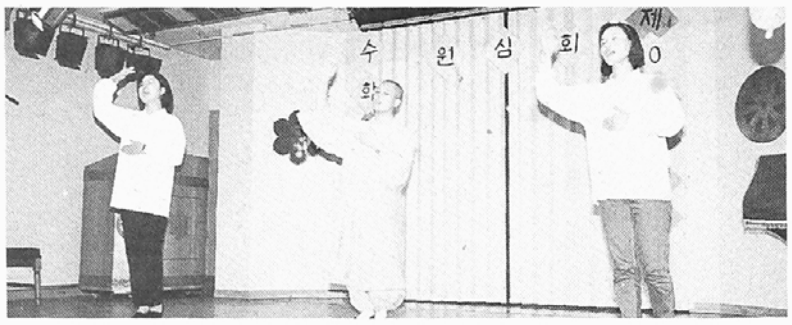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점자로 된 책을 읽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책의 내용을 음성에 담은 테이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곧 '말하는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02)720-4528

수려한 산천 역사의 향기
터사랑 태백·삼척 기행

아름다운 꽃과 싱그런 햇살이 조화스런 계절. 이럴때면 한번쯤 이 국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감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국토순례모임 '터사랑'이 이 땅에 대한 사랑을 가득 싣고 6월 10, 11일 양일간 강원도 태백산 일대와 삼척주변의 문화유적지를 찾아 국토순례를 떠난다.

'산이 있어 거기에 오른다'는 말처럼 '내 국토가 있어 여기를 걷는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의미있는 순례가 될 듯하다. (02)725-1284



◇ 마음에 담은 따뜻한 물심을 두손의 수화로 전하며 맹인불자 포교에 온 힘을 기울이는 원심회의 법우들.

국토를 맑고 풍요롭게
'은행나무 심기' 강좌

우리국토를 보다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은행나무 강좌'가 열린다.

산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무로 알려진 은행나무는 공해에도 강해 도시에서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각종 약재로도 널리 쓰이는 나무이다.

이창호 한국은행나무연구원장의 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은행나무의 약효, 자원, 상품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강의는 6월1일 오후1시~3시,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 사무실에서 열린다. (02)972-9269

멋·향기 넘치는 생활
불교문화센타 강좌

생활에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새로운 불교문화가 시작되는 곳, 불교문화센터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불자들에게 문화의 향기를 선사한다.

오는 6월5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계속되는 이번 제11기 강좌는 반야심경 강의, 원각경 강의, 불교사상강좌, 생활선, 불교문화재교실, 불화그리기 등 총48개의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 운영된다. (02)703-0108

종립학교 소년소녀 가장에 희망을
수안스님 전시 2천만원 기탁, 대상자 접수중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은 지난달 26일부터 5월2일까지 운현궁 미술관에서 열린 '소년소녀 가장 돕기 및 불사를 위한 수안스님 초청 한마음 특별전'에서 모금한 2천만원의 성금을 종립학교 '모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해달라'며 본사에 기탁했다.

'나의 그림은 기도'라며 그림과 수행을 동일선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수안스님의 작품들은 선과 동심의 세계의 해맑은 정서를 그대로 표현해 왔다. 뜻깊은 이번 행사는 스님의 동심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보여줘 주위의 훈훈한 미소를 자아내게 했다.

도움이 필요한 종립학교 소년소녀 가장을 본사로 추천하면 선별해 장학금을 수여한다. (02)722-4162, 737-8881

'세계를 푸르게 서울을 푸르게'
그린스카우트 환경콘서트

본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린스카우트가 제23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그린웨일리축제 '세계를 푸르게 서울을 푸르게' 행사를 지난 28일 올림픽공원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됐다.

국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열린 이번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김원준, 박진영 등 인기가수들이 함께하는 환경콘서트를 펼쳤다.

나의 수행일기

종교적 방황 후 '자유' 찾아 초발심
대학교수 '상' 버리고 나서 믿음의 참뜻 깨달아

김안호 <조선대 경제학교수>



내가 불교에 입문한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지만 나는 한때 기독교 신앙생활을 4년 가까이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종가댁 장손으로서 제사문제로 심한 갈등을 느낀 끝에 찾은 곳이 아내가 다니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었다. 스님들은 흩어진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공부하고자 집요하게 파고드는 나의 질문에도 전혀 싫은 기색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 절은 조계종 소속 사찰로서 각 지역별로 지원이 있고 각 지원에 두세분의 비구니스님이 계시면서 중생의 마음 닦는 공부를 지도하고 있는 조그만 사찰이었다. 보통 사찰하면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위치하지만 그곳은 도심 한곳에 위치한 것부터가 다른 사찰과 달랐다.

스님들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은 마음이 곧 부처이니 자기 마음, 즉 자기 주인공을 확실히 믿고 그 자리에 놓고, 맡기고, 관(觀)하라는 생활참선으로 축약시킬 수 있다. 선원 큰스님의 가르침을 행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면 내 주위가 편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고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자유인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놓는다, 맡긴다, 관한다는 말씀자체의 이해도 쉽지 않았으며, 행(行)은 더욱 힘들었다. 처음 나는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스님이나 신도들에게 질문을 하였지만 대답은 각기 달랐다.



나는 나의 의중을 내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불경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주위의 교수들은 전공서적은 보지 않고 불경서적만 보는 내가 이상했던지 "김교수, 스님 될거야?"하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문자에 끄달리지 말고 마음 닦는데 정진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 말씀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아는 것이 있어야 행(行)을 할 것이고 행(行)이 있어야 증(證)이 있을 것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책을 읽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이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나는 경제학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논리적 분석에 길들여진 습관으로 불법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던 것이다. 더욱이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고, 스님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었다.

나 같은 중생의 사량으로 분별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무지의 소치인가를 뒤늦게나마 알게 된 것이다.

부처님이나 조사들은 항상 "글자에 의지해서 해석하면 삼세 부처님들의 원수이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글자에 구애되지 말고, 법문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책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스님께서도 책을 보아도 본 바가 없이 무애자재한 견해로 부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

우리 같은 범부중생이 참으로 해탈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마음을 닦아 깨쳐야 되는 것이지 문자를 의지해서 증득하려고 하면 참다운 공부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는 우리에게 자성이 부처라고 가르쳐 주신 큰 공덕을 남긴 분들이지 그들이 중생을 부처로 만들고, 제도하지는 못한다. 사실 절이나 스님탓을 할 필요가 없으며, 도반들의 말에 끄달릴 필요도 없이 오직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초심자는 마음을 낮추어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허물만 보아서 모든 일에 물듦이 없이 하고 공부만 부지런히 해야 한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아상(我相)이 없는 사람은 참다운 보살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나 라는 상이 너무 크면 공부를 공부답게 할 수 없다.

나도 대학교수라는 상과 관념의 벽 그리고 습관과 집착이 공부하려는 나를 어렵게 했던 것 같다. 초심자들은 나와 같은 어리석은 무명을 벗어버리고 쉽게 견성(見性)하여 성불하시길 바라면서 나의 수행기가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禪에 대한 의문들을 해결하고 싶은가?

禪수행 전반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을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진제대선사의 선이야기

禪 백 문 백 답



본문 중에서

문 선가귀감에 이르기를
"이치로는 깨달았어도 습기는 除하지 못했다."
라고 말했는데요.
답 그것은 모순이다.
물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순금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견성을 하면 습기와는 상관이 없다.
번뇌가 곧 보리, 완전히 진리로 돌아갔는데
번뇌에 놀아나게 되겠는가?
● 경오년 4월 수선회와의 문답 중 ●

문 스님께서는 화두를 目前에 두라고 하셨는데,
목전에 둔 화두 있고 화두 드는 사람 따로 있고
하면 둘로 쪼개지는 것 아닙니까?
답 둘로 어떻게 쪼개져.
그건 온 정신을 목전에다 두라는 말이지.
목전에 두는 것이 숙달되면
앉아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걸어갈 때도 그렇고, 누울 때도 그렇고,
어느 때건 한 생각 모으기가 쉽다.
● 경오년 동안거 정진대중과의 문답 중 ●

하하, 알고 또한 알겠는 가?

떨어진 꽃은 뜻이 있어서
흐르는 물을 따라가나,
흐르는 물은 정이 없어
떨어진 꽃만 보냄이로다.

● 서문 중에서 큰스님의 말씀 ●



※ 도서공급 운주사 02) 720-9371~3

도서출판 파란나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651-1번지 TEL (053)252-4825 / FAX (053)252-7549

선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쉬운 대화체로 엮었습니다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13〉

孤山智圓法師 勉學(고산지원법사 면학) ③

夫聖且賢 必務於學
부성차현 필무어학
聖賢以下 安有不學而成人哉
성현이하 안유불학이성인재
學 猶飮食衣服也 人有聖乎賢乎衆庶乎
학 유음식의복야 인유성호현호중서호
雖三者 異而飢索食 渴索飮
수삼자 이이기색식 갈색음
寒索衣則不異矣 學也 豈得異乎
한색의즉불이의 학야 기득이호

무릇 성인과 현자도 반드시 배움에 힘쓰거든 성현도 못되는 이가 어찌 배우지 않고 사람이 되리오

배움은 음식·의복과 같다. 사람에는 성인·현자·보통사람이 있다.

비록 이 셋이 다르지만 배고프면 먹을 것 찾고 목마르면 마실 것 찾고 추우면 옷을 찾는 즉(서로) 다르지 않으니 배움인들 어찌 다르리오.

惟禽獸土木 不必學也
유금수토목 불필학야
嗚乎 愚夫 嗜飮食而不怠 冒貨利而休
오호 우부 기음식이불태 모화리불휴
及就于學 朝學而夕怠者 有矣夫
급취우학 조학이석태자 유의부
有春學而冬怠者 有矣夫
유춘학이동태자 유의부
苟如嗜飮食冒貨利之不知怠者
구여기음식모화리지불지태자
何患於不爲博聞乎 不爲君子乎
하환어불위박문호 불위군자호

오직 금수·토목은 배울 필요가 없다.

슬프다. 어리석은 사람은 음식을 즐기는데 게으르지 않고 재물과 이익을 탐내어 쉬지 않되 배움에 이르러서는 아침에 배우다가 저녁이면 게을리하는 이가 있으며 또 봄에 배우다가 겨울에 게을리 하는 이가 있다.

진실로 음식을 즐기고 재화 탐하기를 게을리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찌 널리 듣지 못하고 군자되지 못함을 근심하리오.

曰世有至愚者 不辯菽麥之異
왈세유지우자 불변숙맥지이
不知寒暑之變 豈令學也 豈可教也
부지한서지변 기령학야 기가교야
曰至愚 由不教也 由不學也
왈지우 유불교야 유불학야
有能教之不倦 彼心之不怠者
구사교지불권 피심지불태자
聖域可踏而跻乎 何憂菽麥之不辨也
성역가제이승호 하우숙맥지불변야

이르되, 지극히 어리석은 자 있으니 콩과 보리의 다름을 가리지 못하고 춥고 더운 변화도 알지 못하매 어찌 배울 것이며 어찌 가르칠수 있으리오?

이르되, 지극이 어리석은 자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은 까닭이니 진실로 스승의 가르침에 권태를 느끼지 않고 제 마음이 게으르지 않는 이면 성현의 자리에 밟아 오를 수 있을 것인데 어찌 콩·보리를 못가린다 걱정하리오

且愚者 渴而知飮 飢而知食 寒而知衣
차우자 갈이지음 기이지식 한이지의
旣知斯三者則 與草木殊矣
기지사삼자즉 여초목수의
惡乎不可學也 不可教也
오호불가학야 불가교야
人之至愚 豈不能日記一言耶
인지지우 기불능일기일언야
積日至月則謂記三十言矣
적일지월즉기삼십언의
積月至年則三百六十言矣
적월지년즉삼백육십언의
積之數年而不怠者 亦幾於博聞乎
적지수년이불태자 역기어박문호

또 어리석은 이도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알고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옷 입을 줄 아나니 이미 이 세가지를 아는 즉 초목과는 다른지라

"매일 한가지씩 배우고 착한일 쌓으면 범부도 군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又曰取一小善而學行之
우일취일소선이학행지
積日至月則身有三十善矣
적일지월즉신유삼십선의
積月至年則身有三百六十善矣
적월지년즉신유삼백육십선의
積之數年而不怠者 不亦幾於君子乎
적지수년이불태자 불역기어군자호
爲愚小人而不變者 由不學耳
위우소인이불변자 유불학이

또한 하루 한가지 작은 선을 취해 배우고 행하여 날이 쌓여 달이 차면 곧 몸에 삼십가지 선이 있게 되고

달이 쌓여 한해가 되면 곧 삼백육십가지 선이 있게되고

여러 해 게으르지 않으면 또한 군자에 가까와 지지 않겠는가

어리석은 소인으로서 변하지 않는 자는 배우지 않는 때문일 뿐이다.

龍 眼

★ 지상법석

"나를 비우고 삼독심 여의면

고송스님 〈파계사 조실〉



약력
- 1906. 10. 10 生
- 1920년 팔공산 파계사 출가
- 금강산 등서 수행정진
- 망월사서 30년 결사
- 1923년 용성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부처님은 도솔천을 여의지 않고 정반왕께 오셨드라, 마야부인 태(胎)중에서 나오기 전에 일체중생을 제도해 마쳤드라.'

여기에 성불(成佛)하는 도리가 있고, 생사를 영달한 도리가 있어요.

석자모니 부처님은 고해(苦海) 중생을 건지시기 위해 사바세계에 오심이 없이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원래 '오셨다', '가셨다', '태어나셨다', '돌아가셨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여한 자리에서 오심이 없이 오셨다고 해서 여래(如來)라고 합니다. 허공(虛空)이 왔다 갔다, 태어났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하듯이 부처님은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오셨기에 오고 감이 없습니다.

중생은 분별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 모

부처님 법신은
우주에 가득 차
시공 가리지 않고
일체중생 앞에
나타납니다

양이 떠난 상태와 경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법신은 우주에 꽉 차 있어 널리 일체중생 앞에 나타납니다. 두두물물이 부처님의 상호(相好)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범부들은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몸으로 나신 부처님만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빌리셨을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뜻을 제대로 안 후에 우리는 부처님의 대자비행을 본받아 부처님의 분신(分身)으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는 부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중생의 눈으로 보려하지 말고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성도(成道) 후 '일체중생이 부처님과 같은 덕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은 말씀은 일체중생을 똑같이 평등하게 취급하신 혁신적인 일대 선언입니다. 여기에는 추호의 의심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에 '自性' 지혜의 횃불을 밝히면 곧 본래면목(本來面目)그 자리요, 반야선이 다른 피안·열반·저 언덕 자체인 것입니다.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하나'이므로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가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수한 망상과 집착, 탐진치 삼독 때문에 우리는 부처가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我)라는 생각과 욕심을 남김없이 버린다면 누구나 곧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그러한 서원을 발할 때 정각(正覺)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 무수한 고난과 역경의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생이 다겁생멸(多劫生滅)하는 동안 쌓아왔던 업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부처님 法에 의지하여 뛰어넘지 않고는 무명(無明)을 광명(光明)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6년간의 설산(雪山) 고행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는 고통과 즐거움이 없는 비고비락(非苦非樂)의 수행을 보리수 아래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고행과 쾌락에 치우친 수행만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49년간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셨습니다. 8만4천의 법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자(離苦得樂)'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즐거움은 인간의 오욕락(五欲樂)처럼 즐거움을 누릴 수록 점점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이 아닌 영원불변한 행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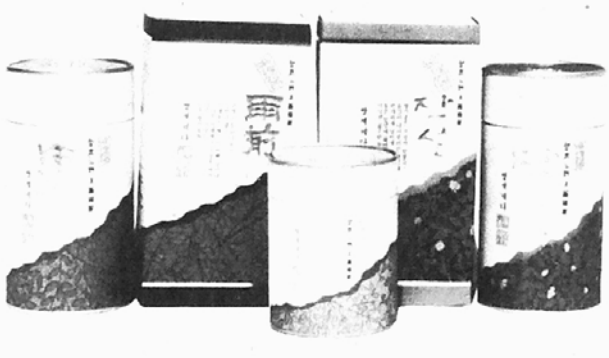
신라문화원은 불교대중화와 우리선조들이 물려주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茶 만드는 계절입니다"

茶人들에게 穀雨(四月二十日)에서 立夏까지는 성스러운 계절입니다. 그것은 풀의 聖賢인 茶를 만드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선물 쌍계제다의 茶를 선물하시는 것은 '지리산의 향기'를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山野에 自生하는 찻잎을 채취하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라문화원 쌍계제다의 茶를 신라문화원에서 구입하시는 것은 '불교대중화와 문화운동에 앞장서시는 일'이 됩니다.



풀빛마음
풀빛손길로 만들어 내는
野生 綠茶!
⊘우전 ⊘작설 ⊘죽로 ⊘옥천



한잔의 차는 한 조각 마음에서 나왔으며/한조각 마음속에 한잔의 차가 있도다/마땅히 한잔의 차맛을 보니/한맛에 무량한 즐거움이 나도다 -함허 득통선사

구입처 신라문화원 (0561) 771-1950, 746-1950, FAX 773-1950
780-030 경북 경주시 노서동 120-9번지 (서라벌 문화회관 맞은편)

쌍계제다
본사: 경남 하동 화개 옹강리 318
(0595) 83-2449, 83-2440
서울사무소: (02) 720-5392
부산사무소: (051) 242-7719

지상법석 ★

누구나 성불할 수 있어요"

'남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까' 대비심을 내면 그대로 부처님이 출현 합니다

'온갖 나쁜 일 저지르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두루 행하라. 스스로 마음을 깨끗히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고 하는 7불통계게(七佛通誡偈)가 부처님의 49년 법문의 내용을 가장 쉽게 답고 있습니다. 악한 일 짓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쉬운 가르침입니까? 다만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실천이 어려울 따름입니다.

본래심(本來心)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비우십시오. 본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늘 절을 하십시오.

그런데 절을 하면서 성질은 왜그리 빳빳한니까. 절을 하는 행위는 나를 꺽으라는 것입니다. 절은 하심(下心)을 내기 위한 공부가 되는데, 자기를 꺽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몸짓이 됩니다. 옛날엔 절을 한 번만 해도 사람들이 온화함을 보였는데, 요새 사람들은 절만 꾸벅꾸벅 잘하지 속마음은 뻣뻣하지요.

세상사람 중에는 껍데기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와 너라는 구별을 버리고 참다운 진아(眞我)를 돈증(頓證)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과를 알고 사리(事理)를 밝히는 공부를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또 공부를 하면서 남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받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제 밥 그릇은 스스로 챙겨야 하듯이 남에게 의존하는 공부는 한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욕심을 끊고 구하는 것이 없으면(爲慾無求) 숙명통(宿命通: 전생의 일을 잘아는 신통력)이 멀지 않고 해탈(解脫)이 멀지 않습니다. 드디어는 '그대가 바로 부처(汝卽是佛)'가 되는 경지에 이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부처인 줄 모르고 다른데서 부처를 찾을려고 야단입니다. 헛된 일이지요.

오늘날 깨끗한 정치, 바른 삶을 찾자는 구호를 너도 나도 외치는데,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종교인들이 나머지 비종교인들을 선도하지 못해 이러한 도덕불감증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향락을 위해 인명을 파리 목숨처럼 해치고, 몸뚱아리의 자양분을 위해 미물을 함부로 죽이는 오늘의 세태는 종교인들이 책임을 지고 반성하면서 바른 길로 선도해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 꽃과 노래와 연등을 바치는 것도 좋지만 불교인들이 대오각성하여 주변부터 밝게 정리하면서 내 마음, 내 가정부터 밝혀 나가는 자세가 부처님을 받드는 가장 큰 공양이 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영리하지만 진리는 평범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예전과 다름이 없고, 저 대천세계에 물 내려가는 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상적인 현상은 변하고 바뀌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일러 자성(自性)은 불변이라는 것이지요.

재가불자들은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저마다 잘 알고 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아서 제각기 가다가 벽에 부딪치면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돌아앉아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말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 그대로 여여(如如)하게 생동하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억지로 좋은 말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과 물을 아무리 그대로 그리려 한들 똑같이 그릴 수는 없습니다. 같게 그리려고 애쓴들 더욱 어긋날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시장하면 밥먹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돌아앉은 이에게는 도무지 감(感)이 안갈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치는 방도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깨쳐서 진리와 하나가 될 때 모든 말이 하나로 통합니다.

사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헛되고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사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살게 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루 아침밥도 먹기 힘든 신분에 세 때를 산해진미로 먹어야 겠다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우리가 삼독의 어리석음을 벗어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반야바라밀'은 사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허타산을 떠나 사물의 실상(實相)을 바로 알면 집착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모르면 어떤 물건을 봐도 그것의 형상에 마음을 빼앗겨 애착과 욕심을 내게 됩니다. 급기야는 소유욕으로 인해 물건을 훔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찻잔이 먼지로 이루어져 있듯이 근본으로 들어가면 무상(無相)의 경지가 펼쳐집니다. 지혜를 구족한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살은 일체중생을 제도키 위해 수행을 합니다. 국민 모두가 보살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극락세계는 이 땅에서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남에게 어떡하면 이익을 줄꼬' 하는 대비심(大悲心)을 내면 그대로 부처님이 출현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정신과 대자대비의 몸뚱이를 지닌 채 중생제도(衆生濟度)로 양식을 삼는다면 거기에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정신이 살아 있다면 오늘날 혼탁한 세상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제도를 위해서는 먼저 세간(世間)의 생멸을 관(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착을 여의면 곧 날곳을 두지 않게 됩니다. 범부(凡夫)가 지혜가 없어 생각을 짓고 집착하여 유(有)와 무(無)를 구하고, 바르지 못한 허망한 행동으로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 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을 복은 영원히 새지 않는 독에 물을 짓는 일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공덕이 가이없는 복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물건이 모두 끊어진 자리에 무량한 복덕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다는 생각도 말고, 받는다는 생각도 말며, 이 물건이 어떤 것인지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不讀金文不坐禪 無言相對是何宗 非風流處風流足 碧嶂千年秀古松

經도 읽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으며, 말없이 상대하니 이 무슨 宗인고, 풍류 아닌 곳에 풍류가 넘치니 푸른 뫼부리에 천년묵은 고송이 빼어났네(한암스님이 고송스님에게 법호를 지어주며 써 준 전법 게송)

'나쁜일 말고 선행 많이 하라' 부처님 49년설법
욕심 때문에 실천 못해 … 인과 바르게 알아야

> 하심하기 위해 절 하는데
> 자기를 꺽지 않으면
> 아무 의미 없는 몸짓이 됩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㉖

양 형 진

부증불감

무분별·무심 경지서 보면 생멸 증감은 없어
일체는 변하지만 바닷물과 파도같은 현상

어떤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 본 적이 있다.

불교에서는 윤회한다고 하지만 지구위에 사는 사람의 수는 계속 늘어가기만 하는 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다 어디에서 오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왜 사람의 수만 세느냐고 물었다. 지상에 사는 생명체가 사람만은 아닐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무수히 많은 생명체가 같이 살아가는 장소이다. 실제로 불교를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세상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윤회 사상을 부정하고자 하는 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윤회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를 과학으로 부정하기는 더욱 어려우리라고 생각한다. 과학으로 이를 부정하려면 이 세상에 사는 박테리아의 수까지 모두 세어야 하는 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체의 수를 세어가면서 윤회가 맞느니 틀리느니 하고 논쟁하는 것은 불교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린 아이 장난과 같은 것이요,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해명하면서도 오히려 남음이 있는 선언이 반야심경에 나오는 부증불감(不增不減)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무엇이 부증불감인가? 흔히 바다를 부증불감의 간단한 예로 든다. 무수한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닷물의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다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어느 한 순간 쉬는 일없이 계속하여 운동하고 있다. 한 쪽에서는 강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또 한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수증기가 바닷물의 표면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바다인 것 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매 순간 변하고 있으니 바로 전의 바다가 지금의 바다가 아니요 지금의 바다가 또한 바로 후의 바다가 아니다. 이 변화의 과정 중에서도 유입되고 방출되는 양이 동적인 균형을 이루어 바닷물의 양은 언제고 부증불감이다. 생명체의 예를 들어보자. 생명계의 모습은 물론 나고 죽은 것이라고 하여야 하겠으나, 바닷물에서와 마찬가지로 나고 죽음에도 실제로 증감은 없다. 생명체의 나고죽음이라는 것이 지수화풍의 사대(현대적인 표현을 쓴다면 제 원자)가 화합하거나 별리(別離)하는 것이어서, 현상적으로 보면 나고 죽음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없으니 이 또한 부증불감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나고 죽음 뿐만 아니라 매 순간의 삶이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지만 한 치의 늘어남도 줄어듬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마치 바닷물에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것이다. 현상적으로는 바람이 불음으로써 그 전에 없던 파도라는 형상이 생기지만, 이 파도라는 것은 단지 바닷물이 바람이라는 인연을 만나 모습을 바꾸어 이루어진 것 뿐이므로 일체의 증감이 없다고 보아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왜 증감이라는 집착을 갖게 되는가? 그것은 강물이 유입되는 것만을 보기 때문이며, 바다 표면에서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 만을 보기 때문이며, 나는 것 만을 보기 때문이며, 죽는것만을 보기 때문이며, 파도 만을 따로 떼어내어 보기 때문이다. 강물이 유입되고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을 같이 보고, 나고 죽는 것을 같이 보며, 파도가 일고 스러지는 것을 바다와 함께 본다면, 즉 일체 존재를 이것과 저것, 또는 나와 너라는 분별상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주객을 합친 경지에서 본다면 느는 일도 없고 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종륵스님은 "제법(諸法)의 당체(當體)가 진공실상(眞空實相)이니 실상의 체를 세워 본즉 생멸함이 없고, 생멸이 없으니 어찌 구정이 있겠는가? 또한 구정이 없으니 어찌 증감이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또한 능엄경에서는 "오음(五陰)과 육입(六入)과 십이처(十二處)와 십팔계(十八界)가 모두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별리하면 허망하게 멸한다."로 하였으며, 또한 "업(業)을 따라 발현(發現)하는 것이어늘…다만 식심(識心)으로 분별하고 계도(計度)하는 것이라 다만 언설(言說)이 있을 뿐이요, 전혀 실의(實義)가 없다."고 하셨다.

불구부정에서 말하였던 것과 같이 무분별 무심의 공관(空觀)으로 올바로 본다면 오직 부증불감일 뿐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불교성지 순례



백 두산·연길·북경 5일
· 출 발 : 6월 25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출 발 : 6월 20일
· 동참금 : 118만원

■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6월 18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페이-
· 출 발 : 6월 20일
· 동참금 : 65만원

중 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6월 20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십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 출 발 : 6월 23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 벳·네팔 10일
· 출 발 : 7월 20일
· 동참금 : 230만원
· 일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사세 확장으로 의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고은 불교 대하소설

만화의 승천(昇天)



29

우녀의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굵은 빗방울같은 말에 합두는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무전이 큰 고기 속의 벌레로 살고 있는 사실을 안 우녀의 뜻은 합두에게 바로 그런 무전에게 달려가지 않겠는냐는 것인지도 모른다. 합두는 예불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가는 우녀를 뒤따라 갈 뿐이었다.

'이제 이 무욕도 도량도 다만 파도소리만 남겨질 때가 오겠지"라고 우녀가 어둠 속의 새로운 기운이 감도는 새벽 파도소리에 대고 한마디 던지는 것이었다.

무전을 장사 지낸 뒤부터 새벽 예불도 죽비 세번을 쳐서 3배(三拜)의 큰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낸 그 자리에서 바로 좌선에 들어간다. 다만 남각만이 무전을 바다에 던지고 돌아오는 길에 파도더미를 피하다가 배의 좌관 모서리에 무릎이 다쳐 큰 방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남각으로서는 아주 잘 된 일이었다. 그는 얼마전부터 도무지 좌선에 대한 짜증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누가 듣지 않을 때는 소나무나 바위너설에 대고 "너희들도 괜히 좌선한다고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있구나! 나는 좌선이 싫다. 좌선으로 부처 된다면 부처는 열번 된다 해도 싫다. 아니 꾸벅꾸벅 졸거나 갖가지 망상만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깝기 그지 없다… 제기럴."

이런 말은 벌써 여러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만화가 남각의 이 말을 들은 것이다.

"무슨 도깨비 똥같은 소리인가."

만화가 남각의 멱살을 한번 움켜잡았다가 놓아주며 한 마디 내지른 것이다.

하지만 남각도 다른 때와 달리 만화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좌선과는 맞지 않습니다."

"맞고 맞지 않고가 어디 있어. 대추나무 가지에 연이 걸리는 것이 맞아서 걸리는가. 바람에 연이 날리는 일이 맞지 않아서 날리는가. 이 사람 남각! 자네는 내 밑에서 사공노릇을 그만큼 했으면 내 생각을 짐작할 만 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핀잔이 있고 난 이래 남각은 무릎 빼를 다친 것이었다.

인담은 그의 스승 담인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터득한 의약(醫藥)의 솜씨가 있어서 얼마전부터 대중의 병고(病苦)에 이것저것 처방을 내고 있었다. 남각의 무릎에는 무욕도의 북쪽 모래톱 가녁에서 구해온 모시 조개껍질을 빻아서 그것을 쑥 반죽에 섞어 붙혀주었다.

하지만 뼈를 다친 것이라 시간이 걸렸다.

"부처님 복장(腹藏)에 들어있는 금강저(金剛杵)를 꺼내다가 남각대사의 무릎을 다스려야 무릎이 제대로 움직일 모양이야… 아무튼 얼마동안 좌선 대신 와선(臥禪)을 하시게나."

이렇게 너그럽게 달래는 인담에 비해서 만화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만화가 육지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배를 저어 떠났다. 양식과 그밖의 필수품들을 사기도 하고 서산의 신도들이 모아놓은 시물(施物)들도 실어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가 섬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하루이틀 늦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녀만이 그런 생각과는 달리 아무런 내색도 않는 걱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만화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떠난지 9일이 되는데 남정네 한 사람이 건너왔다.

서산에서 만화가 충청도 내포(內浦)지방에서 일어난 민란의 한 가담자로 오인되어서 즉결로 목을 잘렸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무욕도의 수행자들은 곧 의논에 들어갔다. 너도 나도 고개를 숙여 침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담이 입을 열었다.

"몇사람이 관아에 찾아가 항의를 할 일이요. 생사람을 역적으로 몰아부친 것은 분명히 큰 잘못임에 틀림없으… 고을 원이 아무런 대책을 내지 않으면 한양에 소장(疎章)이라도 보내기로 합시다. 이 일은 내가 직접 나서겠오."

"시신이라도 찾아서 다비의 예를 갖춰야 할 터인데"라고 누가 말하자 우녀가 나섰다.

"벌써 그 시신은 여러토막으로 잘려서 사방의 역지(逆地)에 걸어놓았거나 묻었거나 했을 터입니다."

그들은 인담이 서산으로 건너가는 일에 합의를 보고 말았다. 내일 저녁 밀물이 들 때 떼배로 떠날 인담에게 우녀가 슬쩍 찾아갔다.

그들 두 사람이야말로 무욕도의 시작이었다. 우녀가 말했다.

"이제 이 섬의 시절 인연은 다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녀가 여느 때와 다르게 인담스님을 몹시 친밀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들의 처지를 모르는 광경이라면 마치 그들은 한 쌍의 오랜 기시버시와도 같은 정분(情分)을 나누는 것으로 여길만 했다.

"만화스님은 관의 오해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만화스님의 심중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전스님보다 먼저 이곳을 떠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

"그러던 차에 서산의 소요(騷擾)에 앞뒤 생각없이 뛰어드신 것입니다."

"만화스님의 평소로 보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스님, 제 말씀을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내일 떠나지 마십시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들어있는 우녀의 단호한 권유로부터 인담은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만약 만화가 억울하게 죽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이라도 확인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반문이 그의 가슴 속을 울컥울컥 뜨겁게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미 우녀의 뜻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날 저녁 밀물이 수많은 손님처럼 밀려오는 때에 인담은 떠나지 않았다. 아니 그는 무욕도 산꼭대기의 움막으로 가서 거기에 쳐박혀 앉아 있었다.

우녀가 그녀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만화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 지극한 선인(善人)이었으므로 그는 중음(中陰)의 시간이 생략된채 바로 천상계(天上界)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녀가 요즘 하늘을 자주 우러러 보는 것도 천상의 만화에 대한 그녀만의 골똘한 찬탄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내포일대에서 비조직적으로 일어난 민란은 15세 이하의 기민(飢民)을 잡아다가 노비로 삼은 데서 기아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현(縣)의 아전 몇사람을 한때 볼모로 잡는 사건으로부터 발단했다.

어린 아이들을 배고픔에서 건져내어 하루에 보리밥이나 잡곡밥 한 덩어리라도 먹게 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하나의 구제일 수 있지만 그들을 영영 노비의 신분으로 만든다면 그런 조치는 관권(官權)의 만행임에 틀림없다.

때는 귀천(貴賤)의 신분체제가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양반도 3대를 넘기며 벼슬을 살지 못하면 초라한 잔반(殘飯)신세였다가 어느 사이엔가 상민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난다 긴다 하는 천속(賤屬) 가운데서 어느 위인은 하루아침에 생원(生員)이 되어 북적대는 장거리를 노새를 타고 하인을 앞세워 벽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것이었다.

아무리 이런 관이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모자란 노비로 삼아버리는 것은 아직 양반체제의 관습으로는 도대체 용기 못한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다 이유를 내세운 나머지 지방관아의 착취에 맞서 일어난 저항이었다. 그렇다 하나 그들의 저항에는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서 소두령 같은 정도의 사람이 앞장에 나섰으나 워낙 주린 몸이어서 죽창을 들어도 거기에 무서운 투지(鬪志)의 사기(士氣)가 솟아날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판에 만화가 그의 직정(直情) 그대로 뛰어들어 그들의 한 떼를 이끌었던 것이다.

그나마 무욕도에 다행인 것은 만화의 삭발한 모양이 중의 신분이기보다 거사를 위한 결단으로 삭발한 것으로 알려진 일이다. 또한 그는 먹물옷을 허술한 농투성이 옷으로 바꿔입고 싸우다가 생포되었다.

워낙 관아의 수사도 정밀한 것이 아니어서 만화의 신상(身上)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겨를이 없이 처형해 버렸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사람이 서산의 독실한 신심을 가진 노과의 아들이었다. 만화는 그와 함께 무욕도로 실어갈 양식과 시물들을 정리하는 중에 갑자기 난리가 났다는 소리를 들은 만화가 옷을 바꿔입고 떠났기 때문이었다.

사실인즉 만화는 단 한번의 대결에서 그 건장한 몸에 그물이 덮여 꼼짝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그물에 갇혀버리자 바로 그를 따르던 농민들은 베허진 풀처럼 쓰러진 것이었다. 1백20명의 대부분이 피투성이 송장으로 널부러졌다.

그 누구 있어 만화의 마지막 말을 들었던 것인가.

"이제 내 원하는 바 이루어졌다."

만화의 육신은 토막났으나 그의 영식(靈識)은 곧장 천상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제 만화는 그의 직전(直前) 전생의 인간이 아니다. 천인(天人) 천신(天神)이 된 것이다. 그는 이런 천인이 되기 위해서 거의 일부러 죽음에 뛰어들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이 되어도 좋았다. 무엇이 되지 않아도 좋았다. 다만 그가 반평생 보낸 뱃사공의 삶을 통해서 가슴 가득히 채운 바다와 하늘의 그 무궁함이 피할 수 없는 용기가 되어서 빨리 다른 세상에가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지상의 무욕도에서 우녀만이 이런 만화의 축복에 넘치는 새로운 시작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만화는 그가 살았던 사바세계의 일은 그의 천상계만이 이 세계의 최초인 것처럼 기억할 수 없었다.

"잘도 가셨지!"

하고 우녀는 파도가 끝내는 섬 기슭의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물러서는 그 실패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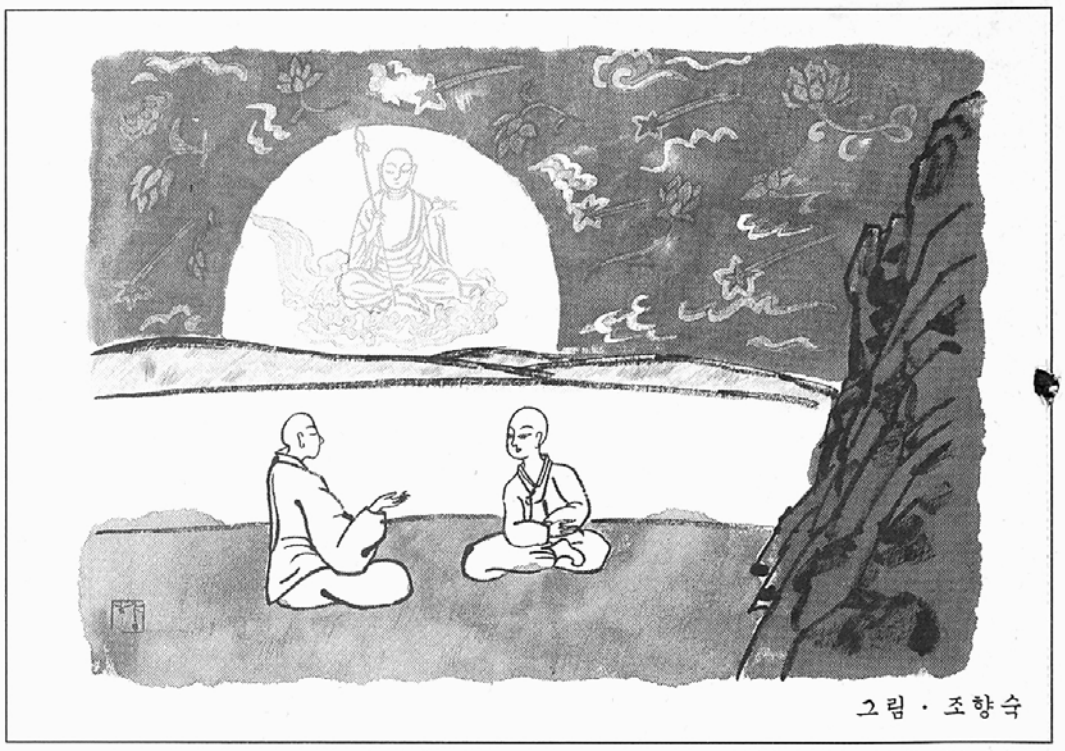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만화스님은 관의 오해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우녀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만화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 지극한 선인이었으므로 그는 중음의 시간이 생략된 채 바로 천상계로 올라갈 수 있었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부처님 말씀 친필 작품
보시하는 마음으로 써드립니다.
268-5702 남강서실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645-6224 대구:952-8711

사찰터 임야 9천평
▮청주근교 보은방향 그린벨트 지역(사찰가능)
▫ 2천평은 사찰터로 시주
▫ 7천평은 1억 4천에 매매
연락처 : 0431-66-0958 이공례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성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 · 병풍 및 액자화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 · 지방 · 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배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송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관절염 암
샤크리지(SHARKLAGE)
100% 상어연골로 해결하십시오!


●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을 억제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다른 기관으로 전이를 멈추게 함(ANTIANGIOGENESIS 작용)
● 연골의 퇴화를 억제하고 새로운 연골의 생성을 촉진시킴.
● 염증을 감소시키고, 치료를 향상시키며, 세포분열을 억제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며, 각종 바이러스를 없앰.
※ 본 제품은 천연의 단백질, 칼슘, 탄수화물, 인, 아연 등이 함유되어 있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수입판매원 : (주) 도백 식품사업부
Tel. (02) 540-7749 (代) / Fax. (02) 540-7779

단청 · 불상 · 탱화 · 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 문의처 : 467-8329
■ 호출기 : 012-307-8329
박석언 합장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총판 윤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목탁함
· 울성(장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법룡사) 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수미단 용각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희곤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스님 및 지도교사를 위한
찬불가 피아노 반주 3개월 완성
교과특성 개인지도 원칙, 레슨기간 자유선택, 찬불가를 통한 음악이론 및 실기지도, 시창청음 별도수업실시
●등록:수시접수(725-7527~9) ●장소:불교교육연구원(조계사 옆)
불교교육연구원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업계 푼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 : 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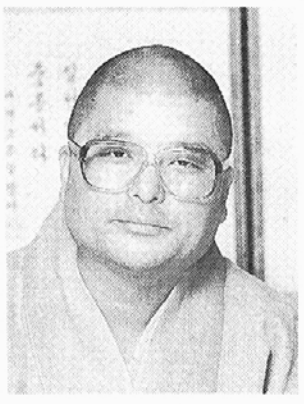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개인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문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현대불교 '차문화 대잔치' 강좌 요지



우리나라 차(茶)문화의 시원(始原)은 역사적인 자료로 뒷받침이 되진 않는다. 그러나 삼국사기 가락국기에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이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뱃길을 따라 동방으로 오면서 불탑, 비단, 향 차, 불구(佛具)등을 가져왔는데, 그때 가져온 차씨를 김해 백월산에 심었다고 전하는데서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설이 있다.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삼국시대를 시작으로 한국불교가 크게 번창한 신라시대, 고려시대와 더불어 크게발전을 해왔다. 한국불교의 공양(供養)의식과 승려들의 차생활 속에서 발전해온 차문화는 불가(佛家)에서 차와선(禪)이 똑같다고 여길 정도로 가깝게 생활해 왔다.

선혜스님의 '한국불교와 차문화'

茶한잔은 참선의 시작

"불교의 궁극목적은 자성의 깨달음이니 茶道 통해 대자대비를 배우자"

다인(茶人)들은 '차 한잔은 곧 참선의 시작'이라고 한다. 다삼매(茶三昧)의 경지가 선삼대(禪三昧)의 경지와 똑같다는 의미다. 이렇듯 차와 선이 똑같다 하였으며, 시작(詩作)은 곧 불사(佛事)라고도 했다.

우리나라의 과거 사회구조는 왕실과 종친, 사대부의 선비층, 지체가 낮은 서민, 불교의 승려사회로 풍속이 나뉘는데 차를 달여 마시는 풍속도 각자 처해진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례의 차이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사원의 례가 한국 차문화를 주도해 왔다. 사원의 의식다례는 대체로 불교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돼 부처님 앞에서 거행되는 공양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불교의 공양의식에는 반드시 4가지 공양물인 차와 꽃, 향, 연등이 뒤여른다. 이 공양물들이 올려진 후 의식이 행해진다. 4가지 공양물 중 차를 공양하는 의식이 가장 중심이 되어 모든 의식이 이루어졌다. 불교의식에 있어 이렇게 활용돼 온 차가 지금의 차문화를 형성했다 할 수 있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자성(自性)의 깨달음을 이루어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것을다도(茶道)라고 한다. 또 다도의 심오한 이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행위를 다례라고 하며, 범패 음악이나 나비춤, 바라춤을 병행하여 거행하는 다례 의식이나 또는 차와 더불어 범패, 승무, 서화, 대자연을 감상하는 것을 다예라고 한다.

〈전통불교문화연구원장〉



차(茶)생활은 여유로운 마음에서 오는 경(敬)과 정성 담긴 예(禮)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남성의 특성은 고고(孤孤)한 선비정신의 청덕(淸德)과 도(道)를 추구하는 철학적 의미를 소중히 하는 사상이며, 우리나라 여인의 독특한 기품은 부드러운 언행과 침착성에서 오는 우아함이라 할 수 있다. 정중동 동중정(靜中動 動中靜)에서 표출되는 우아함은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것이며, 차를 마시는 마음가짐은 차를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처럼 내면의 아름다운 습관을 잘 길러내는데 있다. 차생활의 마음가짐은 자기생활을 즐겁게 영위하며, 진실된 마음을 양심

감승희씨의 '차 예절'

진실스런 몸가짐 중요

"茶人의 심성은 윗어른을 존경하고 친구끼리 신의 지키고 아랫사람을 아끼는 것"

삼아 이타행(利他行)을 목표로 하여 내가 먼저 질서인이 되고, 예절 갖춘 참 예술인이 되는, 바로 그것이다.

다인(茶人)의 심성은 윗어른을 존경하고 동료나 친구끼리는 신의를 소중히 여기며 후배나 아랫사람을 아끼는 마음이다. 이것이 곧 우리나라 사람의 본래 마음이라 하겠다.

'나보다는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어진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마음'
'삼가고 베푸는 마음'
'잘못을 부끄러워 하며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가짐이 진실된 차생활의 기본 마음가짐인 것이다.

차생활에 있어서 몸가짐은 다산 정약용선생의 말처럼 발은 무겁게 하고 손은 공손하게 하며, 입은 다물고 말소리는 조용하게, 머리든 꼿꼿이 가지며 눈은 단정하게, 그리고 서있는 모습은 덕성스럽게 가져야 한다. 그런데 바른 몸가짐이 습관화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늘 생활 속에서 잘 다듬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훈습되고 몸에 배인 바른 몸가짐은 차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단아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차생활의 화려함이나 형식보다는 내용이 알찬 차생활을 통해 우리는 현대생활을 절충하고, 미풍 유습은 흡수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서구문화를 조화롭게 이루어 가야 한다.

〈한국차생활문화원장〉

만 화

法句經 법구경

어진이의 장
깊은 못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리지
않는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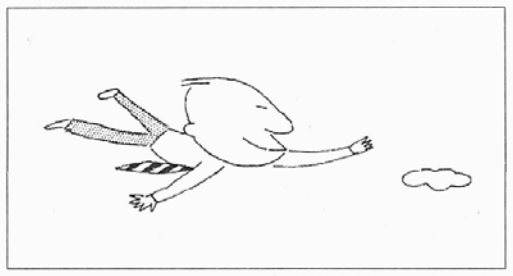
이 향 원



이근후 건강칼럼 <24>

마음과 뇌의 기능 ①

수만개의 뇌세포 정보받아 통합하고 송출



인간의 신체에서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존재하며 기능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옛날부터 지녀왔던 의문이다. 의학이 발달되기 이전에도 막연하게 머리에서 기능할 것이란 추측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가슴에서 기능한다거나 간에서 기능한다는 식의 풀이를 여러 학자들이 주장해 왔었다.

하지만 근대의 의학이 해부, 병리, 생리, 생화학적인 여러 연구를 발전시키면서 마음으로 표현되는 여러가지가 뇌의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에 이르렀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뇌의 기능과 마음의 현상들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마음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그 실체를 만져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람들 뿐만 아니라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까지도 정신과 육체를 구분하여 연구해 온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신체와 정신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 같은 오해를 사게 되었던 것이다.

사람의 뇌는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두개골 안에 있다. 두개골은 신생아로 태어날 땐 완전히 봉합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난다. 아기의 머리뼈를 만져보면 두정부에 말랑말랑한 샘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천문이라고 불리어지는 곳이다. 이 천문이 바로 불완전하게 봉합된 머리뼈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태어나서 6개월정도 지나면 훨씬 단단해 지기도 하며 때로는 완전히 봉합되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이는 머리뼈가 자라서 서로 엉성하게 연결되어 있던 머리뼈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두개골의 성장에 맞추어 그 속에 있는 뇌도 크기가 달라지는데 6개월이 되면 타고날 때의 뇌크기에 비해 두배정도로 자란다. 머리뼈가 어른처럼 아주 단단하게 변할 때가지 뇌의 크기는 다시 두배정도로 더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들어 밝혀지기 시작한 뇌의 해부학적인 구성은 천문학적 숫자의 신경원이란 뇌세포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신경원이 수천 수만개의 연결끈으로 이어져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 보관하며 통합하여 송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혀졌다.

요즈음 발달되고 있는 컴퓨터는 인간의 뇌와 원리는 비슷하나 아주 유치한 초보단계의 뇌라고 비유해도 되겠다. 사람은 태어날때 약 1천억개의 신경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20세가 될 때까지 신경원은 일년에 수천개씩 죽어 없어지며 한번 죽은 뇌세포(신경원)는 재생되지 않는다. 20세가 지나면 그보다 많은 수의 신경원이 죽고 뇌의 무게도 0.9~1.0g씩 감소된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활천당 한약방
(대구 약전골목 중간)
한약의 명소
40년 전통
간염 간경화증
상담 요함
■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86-1
(053-252-8274)

회분·비구니·신부화
꽃다발·생화·조화·동양란·서양란
연 꽃 방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8-3933
(자택)934-1748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Tel: 02)795-4083, Fax: 02)792-9659

경영간부 특별초빙
당사는 그룹매출 6천억 규모의 중견그룹 계열사로 해외수출 및 내수시장의 급신장으로 인한 95년도 사업확장에 따라 최고의 보수와 대우로 경영일선을 책임질 성실한 간부인력을 특별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불자 환영)

모집부문	인 원	응 시 자 격
단위경영책 임 자	○○명	• 연령 40~54세 고졸 이상 • 개인사업 3년 이상 경험자 • 자금 및 제반사항 회사지원
간부사원	○○명	• 연령 37~48세 초대졸 이상 • 기업경영업무 경험자 • 공기업체 7년 이상 경력자 • 보직상급으로 관리 기획분야 경험자 • 영관장교 출신자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3.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4. 문 의 : 서울 554-4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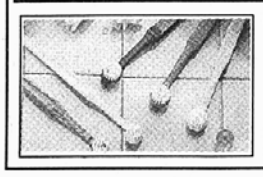
알림공고
소승은 현재 지리산에서 상당한 명당을 발견하여 6만여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곳은 도선국사, 무학대사 등 여러 도인들이 무수한 도인, 현인, 군자가 배출된다고 예언했던 명당입니다.
소승은 이곳에 사부대중이 수행, 기도할 수 있는 가람을 이룩하고자 원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불사를 하실 인연 있는 스님, 신도님을 찾습니다.
연락처 0595-83-6231

질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 (02)552-1470(대) / 팩스 :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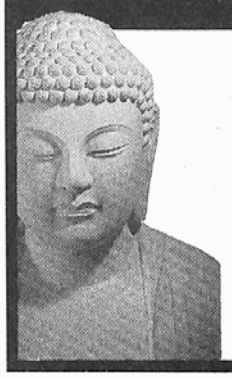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겠습니다.

般若 설비 종합공사
서울시 지정업체 허가 21-304호 기름, 가스보일러 1급, 2급 기능사가 시공함
불심과 공익 완벽한 시공 A/S 철저히
APT인테리어 대표:허성호(공법)
전화번호
주 야 : 4242-511, 4822-511, 4252-025 FAX 477-2751
호출기 : 012-274-1727, 012-804-2025 휴대폰 011-267-2510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3-11(삼전불교종합복지회관 옆)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5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회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에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주)대한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 전화 : (02)556-3076~7 ■ 팩스 : (02)556-3078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전국 제반 고승대덕 큰스님 법체칭안하시옵고 불사 순조로우신지오.
아뢰올 말씀은 본인이 다년간 부동산업계에 근무하면서 쌓은 지혜를 스님들께서 사찰 도교당 창건 및 이전하시고자 하는 좋은 장소를 찾으시는데 스님들이 직접 하시기 힘든 부분에 저희가 손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인연 맺어주시면 부처님의 크신 가피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 제불 순행정도하심은 전국 제1의 비밀을 철저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분스님 및 공양주 보살 또한 · 하실 분 연락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청송기획 대표전화 (02)998-1994
호출 012-271-5634 팩스 (02)998-1994

윤 조각실(불교미술원)

■ 부처님 조성
■ 청동불 조성
■ 대불조성
■ 천불전
■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

새로 나온 책

▲십우도(이기영 역해)=중국의 고승 곽암이 지은 십우도를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인 저자가 십우도 열 장면의 내용과 의미를 풀이했다. 특히 곽암의 십우도에 원효사상의 저류가 흐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불교연구원, 3천원〉

▲법구경의 세계(이원섭 지음)=불교학자이며 시인인 저자가 불교의 초기경전인 법구경을 팔리어 원본을 기준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였다. 알기쉬운 설명과 비유를 들어 해설하고 있어 불교 전반에 걸친 이해와 불교사상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운주사, 7천원〉

▲백수산고(白水散稿, 정완영 지음)=한국시조시인협회장을 지낸 저자가 그동안 펴낸 '채춘보' '蓮과 바람' 등의 작품집 서문과 문우들에게 보낸 서간문을 한데 모았다. 한편의 작품을 쓸 때마다 '시람의 가슴마다에 등불 하나씩을 달아준다는 심정'이라고 고백하듯이 아름다운 글을 읽는 즐거움을 흠뻑 느끼게 해준다. 〈토방, 1만원〉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꼬?(김청균 지음)=달마 이래 동양의 禪을 활짝 꽃피웠던 선사들과 제자들의 문답을 150가지 이야기로 정리했다.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무궁무진한 진리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본문삽화는 조상진씨가 그렸다. 〈동쪽나라, 5천원〉

비교종교학 서적 '관심 고조'



유사·상이점 분석…불교 정체성 확인 계기
종교간 이해도모…강원 교과목 개설 예정

불교 기독교 유대교 등의 종교는 서로 어떤 유사점과 상이점을 가졌을까. 또 불교 밖에서 보는 불교는 어떤 종교일까.

다종교사회 속에서 이같은 물음에 답하는 비교종교학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 요소로 다가왔다. 강원에서도 내년부터 비교종교학을 정식교과목으로 채택한다.

그러나 이 분야의 많은 책들이 기독교의 신학적 입장에서 서술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때 비교종교학이 기독교신학의 한 분류로 오해되기도 했다.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서 여러 종교를 비교연구한 책으로는 〈종교란 무엇인가〉 〈세계의 종교〉 등 10여종을 꼽을 수 있다.

〈종교란 무엇인가〉((니시타니 게이치, 대원정사)는 동서양사상의 비교검토를 통해 동서문화의 융합을 형성하고자 불교와 기독교사상에 대한 비교검토와 논증을 하고 있다. 불교의 입장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종교철학의 지평을 연 책으로 평가된다.

〈무신론과 유신론〉(히사마쯔 신이찌 외, 대원정사)에서는 불교 기독교 양대종교의 비교보다는 대화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나와 너(불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진정 나이면서 너이려면 〈금강경〉의 '즉비(卽非)의 논리'와 '무상의 자기'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교학·종교심리학〉(키시모토 히데오·마쓰모토 시게루, 불교시대사)에서는 기존의 기독교중심적 종교관을 거부한 가운데 종교학의 개념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는 달리 서양의 입장에서 불교-기독교의 비교를 통해 기독교신학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책은 〈불교의 공과 하느님〉(한스 발덴펠스, 대원정사)이다. 저자는 "깨달음을 연 불타의 미소와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예수의 시련에 가득찬 얼굴은 서로 만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물음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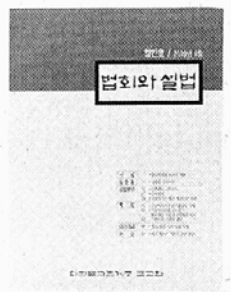
〈세계의 종교〉(유다 유타카, 민족사) 〈불교사상과 서양철학〉(E.콘즈, 민족사) 〈서양에서 본 불교〉(미네시마 히데오, 불교시대사)는 칸트 헤겔 니체 프로이드 토인비 등 서구사상가들의 불교이해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불교의 객관적 모습을 그려내는 시도로 참고할만 하다. 〈불교사상과 서양철학〉에서는 부록으로 70여편의 불교와 서양철학의 비교연구 문헌목록을 실어 관심있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비교종교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도법스님(선우도량 대표선우)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불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든 호교론적인 것이든 타종교의 사상과 정신을 이해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라며 "불교의 주체적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타종교와 화해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방향의 비교종교학 관련서적이 출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출판 단신

'법회와 설법' 창간호 사찰에 무료 배포



일선포교사들을 위한 전문 법회지침서〈법회와 설법〉이 창간됐다.

〈법회와 설법〉 창간호에는 법회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안 3종과, 자료로서 포교원장 정락스님의 '설법을 잘하려면'이라는 논문을 게재했으며, 지난 한달동안 일간지 및 월간지의 기사를 종교 가정 사회 문화과학 국제 등 분야별로 요약정리해 실었다. 또 6월의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와 불교의 관계를 조망한 논문을 실어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법회와 설법〉은 조계종소속 사찰에 무료로 배포되며, 개인구독 희망자에 대해서는 실제 법회지도여부를 확인해 제공한다.

'공해없는 세상' 5호 29일 출판기념법회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회장 원주)에서는 계간〈공해없는 세상〉 5호를 발행했다.

이번호에는 월운 현근 현각스님과 전재성 유정길 김형중법사의 환경법문과 '불교종립학교의 환경교육'을 특집으로 실었다. 공추불은 지난 29일 오후6시 서울호텔에서 출판기념법회 및 신임 간부상견례를 열었다.

불서 종합목록 배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대표 임희근)는 '95불서종합목록을 발행해 배포하고 있다.

3천7백여종의 불서를 불교입문 경전 등으로 분류하고 전체목록과 출판사별 색인란을 두어 저자 출판사 도서명 가운데 하나만 알아도 원하는 불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꾸몄다.

전국 대형서점과 불교서점 등에 보급되며, 운주사로 반송용 우표를 동봉(일반 530원, 등기 1,330원)하면 받아볼 수 있다. 720-9372, 서울 종로구 청진동 6 대명빌딩 1층.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삶에서 깨어나기	틱 낫 한	장경각
2	부처님 말씀	성 열	법 등
3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4	나를 보게 하소서	현 장	민족사
5	차크라바르틴	성 낙 주	살 림
6	인도사회와 신불교운동	야마자끼	한길사
7	젊은 불자들을 위한 수행론	법 륜	중앙불교교육원
8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일 타	효 림
9	술몽쇄언	김 대 현	을유문화사
10	알기쉬운 불교	편 성 부	불교방송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한국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 정병조 지음

신행 풍토 비판 새로운 불교철학 모색



불교는 한국 정신문화의 주류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불교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고 자문해 볼 때 자괴감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며, 불교철학의 새로운 해석을 모색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참인간의 정립을 목표로 하는 인간학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관점에서 불교와 실존철학의 대비를 통해 불교철학을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또 불교가 21세기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대사상과의 조우를 통한 현대적 해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원정사, 1만원〉

불교의식의 바른 이해 한정섭 지음

'석문의범' 자료로 예경·불공등 의식 해설



불교의식은 불교인들의 일체행위와 규범의 총칭이며, 수행과 중생교화의 주요한 방편이다.

〈불교의식의 바른 이해〉는 예경 송주 불공 장례 재공 접안 방생 수계 공양 이운 좌선 법회차례 사경 축원 종고의식 등의 불교의식을 〈석문의범〉을 기본자료로 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불교의식은 스님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신도들까지도 알고 믿자는 열성으로 대중화되고 있다. 지난해 불교방송 대담프로 '무명을 밝히고'의 원고를 당사의 현장감을 그대로 살려 책으로 정리했다.

부록으로 〈석문의범〉 원문을 실었다. 〈삼원사, 9천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거룩한 빛 어둡지 않아
만고에 빛나네
이 門 안에 들어왔거든
알음알이 두지 마라

'거룩한 빛 어둡지 않음'은 앞에 든 '매우 밝고 신령함'의 맺음이요, '만고에 빛남'은 앞에 든 '본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음'의 맺음이요, '알음알이 두지 마라'는 앞에 든 '이름할 수도 없고 모양지을 수도 없는'것에 대하여 어설프게 아는 척하지 말라는 것을 맺음이다. '門'이라 함은 '범부와 성인이 함께 드나든다'는 뜻이니 중국 스님 신회(神會)선사의 이른바 '知' 한 글자가 온갖 묘한 이치의 문이라고 한 것과 같다.

'이름도 모양도 없다'는 데서 시작하여 '알음알이 두지 말라(莫存知解)'는 것으로 끝을 맺으니 이 한편에 얽힌 넝쿨을 한마디 말로써 부수어 버렸다.

위 詩 한편과 해설 일부는 휴정(休靜) 큰스님 리산·금강산·묘향산 등의 여러 절에서 수도생활과 교육을 하면서 당시 불교계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후진들이 제대로 불법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묘향산에 머물렀던 여러해 동안 50여권의 경론과 어록 등에서 공부하는 데 긴요한 간절한 글귀들을 가려뽑아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친 것을 뒤에 책으로 엮어 1564년 (명종 19)에 완성한 1권의 책이 바로 이 선가귀감이다.



김 경 희
〈지식산업사 대표〉

경론·어록서 보배되는 글 모아
후학들에게 '깨우침의 길' 안내

휴정은 선승이기에 교보다는 선을 중시했으나 결코 교를 홀시하지는 않았다.

제5절에서 '禪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입장을 취하여 禪敎一元임을 강조한다. 이는 그가 고려 대각국자 의천의 敎觀兼修나 보조국사 지눌의 定慧雙修의 전통을 이은 것임을 말한다.

그리고 제11절에서 '단숨에 깨치고(頓悟) 점차 닦는(漸修) 두가지는 공부의 시작과 끝'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최근 우리 불교계의 때늦은 논쟁을 생각케 한다.

불교의 입문서로 엮은 이 책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불교계에서 조차 150여회의 간행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지구촌 전법이야기



◇일본군 유해 4천여구를 일본으로 이송시킨 공로로 기시 수상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있는 행원스님.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2>

숭산 행원스님 ②

'삶 이끄는 가르침 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식층을 모아 禪의 세계를 펼쳐 보이니…

이미 그들은 그날의 법회에서 얻고자 했던 그 무엇을 얻었다는 표정이었다.

모여드는 사람들

다보이주의 셋방법당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도 한국에서 받아간 선물들을 처분해서 월세를 지불해 내며 하루하루의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 정작 초라한 것은 협소한 집이 아니었다. 당시의 일본인에게 인식되고 있는 불교 그 자체였다. 교포들도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불교를 무당 푸닥거리하는 것쯤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시대부터 심어져 온 이런 인식의 벽은 좀체 깨뜨릴 수 없는 현실이었다.

각박스런 현실에서 신도들은 스님들을 찾아가 생활고를 털어 놓고 스님들은 그들에게 운세상담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줄 뿐이었다.

"바른 삶을 이끌어 주지 못하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행원 스님은 일본에 선불교를 제대로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추스렸다. 스님이 이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차라리 하나의 해프닝에 가까웠다. 어느날 셋방법당으로 일본인이 찾아왔다.

불교 제대로 포교

"스님, 저의 집에 오셔서 불공을 좀…."

그 일본인 여인은 주위의 무당들이 보낸 듯 했다. 그녀에게는 불공을 청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합시다. 앞장 서시지요."

야트막한 그 여인의 집에서 행원스님은 간단한 의식의 불공을 마쳤다. 선승이니 의식에 능란할 수도 없었지만 그 의식이 갖는 의미 자체가 '테스트'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스님, 무슨 불공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요. 맘에 안드십니까."

"거왜 있잖아요, 아… 에…하던서 불공하는 것 말예요. 그런 불공을 해 주십시오."

그랬다. 오사카 근처에 많이 와있는 한국 승려들이 법패를 하며 일인들에게 불공의 의식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원스님이 "나는 그런것은 모른다"고 하자 가짜로 취급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얼마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인은 짐작대로 무당들의 심부름을 한 것이었고 행원 스님은 '퇴짜'를 맞은 것이다. 퇴짜를 맞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들었으면 무당들이 시키는대로 가가호호 방문하며 의식이나 해주고 불공비의 1할쯤을 얻어 먹는 처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었다.

"바른 불교를 심기 위해서는 지식층의 힘이 필요하다. 지식층 인사들을 먼저 포교 해야겠다."

행원스님은 대사관 직원이나 특파원들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생각대로 그들은 무엇이 진정한 종교인가를 알았고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를 알았다. 무엇보다 선불교의 길을 이해하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해가 바뀌고 한국을 다녀간 행원스님은 신쥬쿠에 새집을 얻었다. 이 새집에서 다시 법회를 열게 됐고 신도들도 많이 모였다. 그중에도 일본 포교에 많은 도움을 준 신도는 소린고바야시 보살이었다. 나이에 비해 주름이 없는 원만한 얼굴의 그 일본 여인은 범양부인회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다. 범양회란 하나의 자선단체로 장관급의 지도층인사 부인들이 만든 단체였다.

엘리트 중심 법회

고바야시 보살도 대학강단에서 은퇴한 엘리트였다. 선을 배우고자 하는 그녀의 열의는 대단했다. 신쥬쿠의 법당에서 행원스님의 법문을 듣고 스님의 포교를 적극 돕기 시작했다. 그날의 법회는 50여명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일상적으로 치러진 정기법회였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법회에 참석한다고 여기 이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 법회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걸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알수 없으니까요."

대중 가운데 누구도 뭐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대중들의 눈빛이 법당안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아무도 말씀을 못하시니 이 노릇을 어쩝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냥 돌아 가셔야 할까요. 허허, 그럼 제가 옛날 얘기나 한가지 할테니 듣고 가시지요."

법당안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었다.

감동하는 대중들

"한암의윤(寒巖義尹)선사의 문하에 한 아이가 들어 왔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방장실에 들어 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손길이 정갈했습니다. 선사가 기특하여 아이가 청소를 마치고 나자 벽장에서 두개의 만두를 꺼내 주었습니다. 아이는 서슴없이 만두를 받아 입에 넣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맛있냐'고 물었지요. '네' '그래, 네 이름이 뭐냐' '만두(萬斗)라고 합니다' '뭐, 만두가 만두를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아이는 두눈을 빛내며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먹는 것이지요'라고 대답했다. 선사는 이 문답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앉아 있는 행원스님의 침묵앞에서 눈을 빛내고 있었다.

이미 그들은 그날의 법회에서 얻고자 했던 그 무엇을 얻었다는 표정이었다.

그중에서 유난히 감격스런 표정을 지었던 고바야시 보살이 며칠 후 행원스님을 다시 찾아왔다.

임연태 기자

"기초부터 새로 다지자"

불미협 31일 백상갤러리서 '불교미술전' '학술대회' 개최

회화·조각등 다양한 작품들 전시
인식·교육개선 현대화 과제 모색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문명대교수)가 부처님 오신 날과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개설 기념으로 마련한 제6회 불교미술전과 제1회 학술대회가 31일 오후5시 인사동 백상갤러리에서 문을 연다.

전시에는 회화, 조각분야 등 회원들의 신작들이 선보이며 학술대회는 '현대 불교미술의 진로'를 주제로 열린다. 현대 불교미술의 진단과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는 이 학술대회에서는 문명대교수(동국대)가 '현대 불교미술의 진로'를 주제로 발제논문을 발표한다. 이어 윤범모교수(경원대)가 '현대미술과 불교미술의 상관관계'를 김창균씨(문화재 전문위원)가 '현대불화의 기법'을 각각 발표한다. 이들 발표에 대한 논평에는 보광스님, 법산스님, 오원배교수(동국대), 임영주씨(공예미술관장)등이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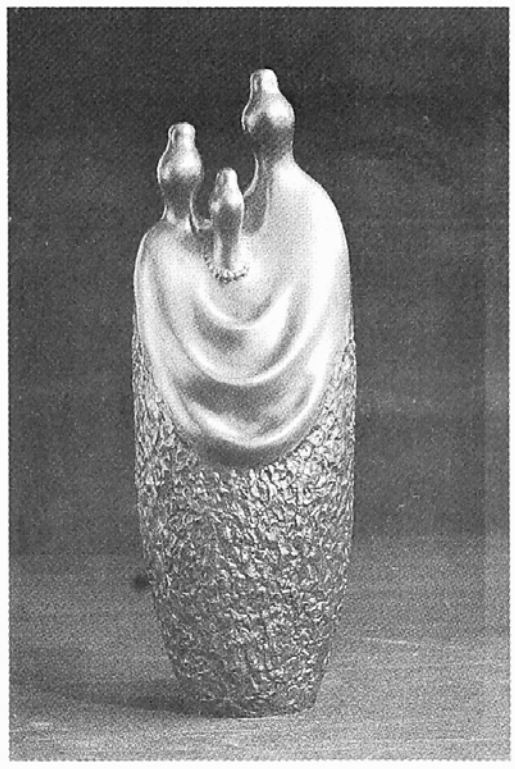
미리 발표된 자료를 통해 문명대교수는 현대에 알맞는 불교미술상의 원칙을 △미의식의 반영 △불교도상경전에 입각한 작품 창조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미의 조화 △종교미술로서의 격조 함양 △주변환경과의 조화등으로 꼽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현대 불교미술의 진로에 대해 문교수는 "불사의 기본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방향이란 교리나 도상경전에 입각한 전형성의 존중이라는게 문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문교수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작가의 체질개선도 현대 불교미술의 바른 자리매김의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윤범모교수도 현대불교미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단의 의식개선과 교육제도의 일대혁신, 전통위주의 수구파와 창작중심의 현대작가의 융합, 전공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등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교수는 무엇보다 작가와 수용자 모두가 불교미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통의 숙지를 바탕으로 한 현대미술 사조의 동시적 호흡등이 이뤄지지 않는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즉 시대의식과 국제적 감각까지 완벽히 갖춘 불교미술계의 풍토 조성이 이뤄질 때 오늘날을 대표하는 예술품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윤교수의 주장이다.

임연태 기자



◇31일부터 열리는 불미협 회원 작품전에 출품된 박병희씨의 조각작품 「카르마-가족」.

불심시심 〈20〉

산 속의 넉넉함

山色暎人衣 (산색영인의) 옷에 스며 비치는 산빛
秋光送夕輝 (추광송석휘) 저녁노을 보내는 가을볕
風淸松自響 (풍청송자향) 바람 맑아 절로 이는 소나무 울림
霜落雁初飛 (상락안초비) 서리 내리자 날기 시작한 기러기
錦繡堆楓岸 (금수퇴풍안) 단풍 언덕에 싸인 금수의 비단
烟霞富翠微 (연하부취미) 노을은 짙어 이 푸르름의 부자
徘徊吟獨賞 (배회음독상) 오락가락 읊조리는 외로운 감상
日暮掩柴扉 (일모엄시비) 해 저물어 사립문도 잠가버렸다

이 시도 부휴대사의 산거잡영(山居雜詠) 중의 한 수이다. 산사의 정적과 산승의 정려가 그저 여실히 나타나 있다. 온 산의 빛이 발을 뚫고 들어와 선정에 든 스님 옷자락까지 퍼렇다. 거기에다 서산에 기운 햇살이 가을볕을 자랑한다. 어딘지 모르게 따사로움을 느끼게 한다.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솔바람이 쏴하는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소리(天籟)이다. 산너머에서 다가오는 기러기 소리가 있다. 그런가 하면 뜰가에는 벌써 서리가 맺혀 있다.

부자요, 넉넉함이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다. 마음이 여유로우면 삼라의 모든 것이 부자마저 부럽지 않다. 골내 깔린 노을 아지랑이, 거기에 짙푸른 이 진여의 실상, 나로서는 부자이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시어로만이 표현될 수 있는 진리의 언어이다.

이 배경 속에 홀로 배회하며 읊조리는 선사이자 시인의 한가로움이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고 있는 것이다. 유형으로 닫히는 사립문을 무형으로 감싸 안는 마음의 문이 따로 또 있다. 앞 시에서 보았듯이 한 잔의 차와 한 권의 경전이 또 다른 세계로 선사를 맞이할 것이다. 묵직히 가라앉은 외계의 자연과 차분이 진정된 내계의 이 마음은 서로 내외의 공간을 뛰어 넘은 그야말로 우주의 선정이자 스님의 선정이다.

이렇듯 큰 스님들의 시는 자연을 읊되 자연의 진실 그대로이면서 그것이 바로 스님들이 추구하는 진여의 세계이고 참선의 세계이며, 이 시를 감상하는 대중에게도 시 자체의 아름다움을 주면서 동시에 진여세계의 여여한 법리를 일깨우는 희열을 느끼게 한다.

이종찬 〈동국대학교 교수〉

'인간내면' 새긴 화가의 조각전

박항률씨, 낙산갤러리

화가란 그림만 그려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조각을 선보인 화가 박항률씨의 조각전이 6월4일까지 동숭동 낙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철저하게 인간의 내면에 대한 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의 작품 30여점이 선보이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명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인물상의 표정을 빌어 표현하고 있다.

서울대 재학시절 직지사에서 만난 스님의 잘생긴 두상에 매료돼 그의 작품 전반에 형상화한 박씨는 의식하지 않은 불교의 정신세계와 인간원형의 향취를 이번 조각전에서 보여주고 있다.



◇박항률작 「1994 Untitled」

불교조각 회원전

31일부터 조형갤러리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회장 김익홍)의 네번째 불교조각 회원전이 31일부터 6월6일까지 관훈동 조형갤러리에서 열린다. (736-4804)

40여 회원들의 불교조각 작품이 전시되는 이번 회원전에는 불상, 수미단등이 선보인다.

서병옥씨 첫 개인전

호사상 표현…도올갤러리

대흥사의 꽃담, 목어등 불교적 소재로 무념무상의 인생과 함께 공(空)사상을 통한 영구한 감각의 세계를 표현한 서병옥씨의 첫번째 개인전이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인사동 도올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사찰의 담벼락 모퉁이에서 볼 수 있는 '꽃담'을 나무 그림자와 절묘한 구도를 이룬 작품과 무너져 내린 석탑, 그 주위로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기왓장들, 늦가을에 을씨년스럽게 변색되어 가는 풀잎, 폐사(廢寺)풍경 등을 세밀하게 묘사한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서병옥」전은 서울 전시에 이어 6월16일부터 22일까지 광주 인재갤러리에서도 열린다.

아동문학상등 시상

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동열)는 제13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과 제2회 불교아동문학신인상, 제4회 찬불가요가사현상공모에 대한 시상식을 지난 27일 오후3시 삼청동 칠보사에서 가졌다.

문화재단신

제주법화사지 발굴조사 올內 매듭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알려진 서귀포시 법화사지 지건물터 발굴조사가 올해안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하원동 소재 법화사지내 3천2백여평의 건물터에 대한 마무리 발굴사업을 펴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문화재관리국의 발굴조사승인을 얻어냈다. 시는 또한 3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발굴한 연지터 6필지 2천평을 추가로 매입키로 했다.

홍성 내원사에 불상·탱화등 소실

지난 8일 오전11시께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오서산 중턱에 위치한 내원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대웅전 6평과 탱화 3점, 불상 2점이 불에 탔다. 경찰은 이날 대웅전에 사람이 없었다는 사찰 관계자의 말에 따라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내원사는 백제 31대 의자왕 16년인 657년에 법명대사가 창건한 충남도지정 제69호 전통사찰이다.

신라때 도가니 발견 불상들 주조 가능성

삼국시대 구리등을 녹여 불상이나 동종을 주조했던 도가니(높이 29㎝, 지름 23㎝)가 경북 영주시 순흥면 순흥국교에 보관돼 있는 것이 뒤늦게 발견됐다.

영주향토사연구회장 최현교씨(61)는 "통일신라시대에 지역에서 제작됐던 각종 불상들이 흑연에 진흙을 발라 만든 이 도가니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경남문화재대관 발간

문화재·민속자료 담아

경남도는 최근 해인사대장경판 등 경남지역에 분포돼 있는 각종 중요문화재와 기념물을 화보와 함께 상세히 소개한 〈경남문화재대관〉을 발간했다.

경남도가 지난 93년부터 2년간의 작업끝에 펴낸 이 책은 대관규모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순으로 편집돼 있다. 도는 지난 2일 추가지정한 남명조식선생 생가지(生家址)등 28건의 도지정문화재를 비롯, 이번에 싣지 못한 문화재 기념물을 정리한 이책을 추가로 제작해 도민들의 내고장 문화재에 대한 사랑을 제고할 계획이다.



◇범조스님

범조스님 음악활동 결산
찬불가CD·테잎 내놔

禪수행 몰두위해 불음포교 중단 밝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14년간 음악포교 현장에서 '법고등등' 울리던 범조스님이 음악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82년 첫무대 이후 10회 이상의 개인발표회를 비롯 40여회의 공연을 가졌던 스님은 "앞으로는 선수행에 몰두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91년에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갖는등 미국과 일본에서도 수차례 무대를 열었었다.

스님은 14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최근 CD와 테잎으로 찬불가집을 내놓았다.

'합장' '생명의 빛' '이루어 주소서'를 타이틀로 3장 1세트로 제작된 이 음반에는 스님의 대표곡과 길옥윤씨의 유작들이 함께 실려있다.

지난 3월 타계한 길씨의 작품은 '추모' '종소리'등 17곡이다. 이중 '추모'등 6곡은 92년 뉴욕 조계사에서 스님과 길씨가 함께 만든 곡이다.

중앙문화센터 불화반 개설된다

중앙문화센터에 불화(佛畵)반이 신설됐다.

6월1일부터 8월20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57기 여름강좌의 불화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두시간씩 진행된다. 불화작가 홍승표씨가 기초실기와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수강료는 8만원. (02)744-4412.

한불회 합창단 4일 하와이 공연

대원사 20년 기념행사…몽고무용단과 협연

한불회합창단(회장 정옥란)이 하와이 샤미나드대 마미아극장에서 6월4일 오후 7시에 「찬불가 및 세계의 음악」 공연을 갖는다.

대원사창건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 공연은 몽고의 무용단과 함께 펼쳐진다. 몽고측 무용단은 몽고전통무용을 선보인다.

이강렬씨의 지휘와 문미선씨의 반주로 45명의 합창단원이 무대에 서게되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등 찬불가와 가곡, 세계의 명곡등을 공연한다. 박철희, 김청자, 박신향씨의 솔로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한불합창단은 하와이 대원사의 국제학술세미나를 지원해 왔다.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월간 〈대중불교〉를 만나십시오"
수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도반은 필요합니다.
〈대중불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법에 입각한 신행운동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불자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과 역할을 끊임없이 모색해온 불교정론지 〈대중불교〉가 이제 수행운동을 함께 펼쳐갑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과 보람으로 이끌어줄 대중불교!
지금 당장 전화로 신청하세요!
불교방송교재 '경전공부' '교리강좌' '불교영어 한마디'를 권말부록으로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월간〈대중불교〉
전화 : (02)773-5731, 752-7047 / 팩스 (02)771-6796

액운을막고 행운을 주는
신비의 황금부적
만사大吉 무병장수 符籙
• 순금 3.75g
• 순은 18.75g (순도 99.9%)
₩ 148,000
■ 장원합격부 각종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데 영험있는 부적
• 대입수능시험수험생 • 고입학력시험수험생 • 취직시험준비생 • 각종자격시험준비생
■ 사업득재운부 사업번창과 재운을 좋게 하는데 영험이 있는 부적
• 사업하시는 분 • 사업을 시작하실 분
■ 동련무사고부 차운전사고나 공장안전사고 건설공사사고 등 각종사고를 방지하는데 영험이 있는 부적
상담처 : 삼천불사 (02)735-5293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보살氣띠부적 메달
부적 천운을 만나는 천지인의 인연
앞(운명보살) 뒤(띠십이지상)
12년마다 되돌아오는 운명지수의 변동을 인연보살님의 천지인의 氣로 천운의 길로 돌려놓은 氣부적입니다.
(子)쥐띠(민철보살) (丑)소(천수보살) (寅)범띠(대륜보살) (卯)토끼띠(수월보살)
(辰)용띠(관세음보살) (巳)뱀띠(관지재보살) (午)말띠(여의륜보살) (未)양띠(대세지보살)
(申)잔나비띠(십일면보살) (酉)닭띠(군다리보살) (戌)개띠(청취보살) (亥)돼지띠(아미타불)
■ 순은(99.9%)18.75g (체인포함) ₩ 48,000
상담처 : 삼천불사 (02)735-5293

티벳 活佛 라마승인 중국서 부정적 의견

지난 89년 입적한 판첸라마 10세의 활불(活佛·환생해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누구일까.

판첸라마 10세의 환생승인 문제가 중국과 티베트간의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불거져 나왔다. 지난 14일 티베트 달라이 라마 측은 중국 청해성(淸海省)출신의 6살난 티베트족 어린이 게둔조에키 니마를 6년전 급서한 판첸라마가 환생한 '활불'로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난 17일 달라이 라마 측이 전통적인 판첸라마 승인권의 행사를 기회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 티베트내 분리운동을 부추길 것을 우려해 달라이 라마 측의 발표를 즉각 부정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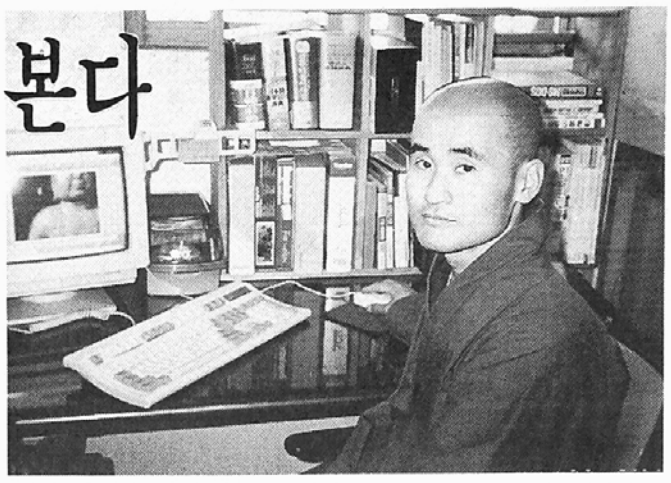
원폭희생자 50주년 日 정토종서 위령재

나가사키시(長崎市)를 일순간에 초토화시키고 7만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원자폭탄이 투하된지 50년. 정토종 나가사키 교구에서는 세계의 영원한 평화와 핵무기개발금지의 발원을 담아 지난 16일 '원폭희생자 50주년 위령재'와 '제6회 정토종 평화추진대회'를 열었다.

이날 약1천여명의 일반신도들은 평화공원에서 나가사키 공회당까지 약4km를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핵무기개발금지와 세계의 평화를 호소했으며, 하시다(橋田)교구장은 "전후50주년을 맞아 지금은 과거의 어리석은 행위를 참회하고 일본의 재건을 위해 노력해야할 중요한 시기로 나가사키의 과거를 두번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부처님 생애 CD롬으로 본다

전생록에서 열반까지 대구불교전산원 제작



◇ 불교전산원 칠엽굴이 부처님 일대기와 〈아함경〉 CD롬 제작을 한다. 사진은 회장 지월스님과 컴퓨터 화면에 수록된 부처님 일대기의 한 장면.

부처님일대기와 〈아함경〉이 CD롬으로 제작된다.

93년부터 불교경전, 논문, 동화의 전산화 작업을 진행해 온 대구불교전산원 칠엽굴(원장 지월)이 최근 관련 소프트개발에 성공한 것.

전생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모두 8개분야에 걸쳐 그림과 상세한 설명 및 음악으로 구성된 부처님일대기 함경CD는 장아함, 중아함, 잡아함, 중일아함등 4부·1천6백여개의 작은 경전으로 구성된 아함경을 색인별,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DB화함으로써 일일이 책을 뒤지지 않고도 일목요연하게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광소 경전을 공부하다 불편함을 느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지월스님은 멀티미디어시대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를 위해서는 불교의 전산화가 필수적이라며 사장되어 있는 경전이나 점점 소멸되어가는 사찰성보 등의 CD롬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초심자·어린이 포교용… '아함경' 일목요연 정리

이번 작업은 교사 불교미술가 불교음악가 프로그래머 그래픽전문가 학생등 20여명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이 직장인인 이들은 퇴근후 시간을 쪼개어 작업에 임하고 있다. 칠엽굴의 사무국장 안병규씨(대륜중학교 교사)는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라 빈약한 재정과 전문인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계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들의 당면과제는 불교동화의 에니메이션화작업, 불교논문전산화, 반야심경의 CD롬화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불교관련 자료의 전산화는 해인사대장경연구소에서 진행중인 한역대장경의 VD롬수록, 사찰관리프로그램인 '아란타' '천수천안' '보리수'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불교영상 대중화 '아직 먼길'

"채널 32모른다" 39%… "시청 못해" 88%

불교리서치 불자설문

상당수의 불자가 불교TV 채널 32번을 알지못하며 불교영상매체에 대한 인지도도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사실은 한국불교문화원 부설 한국불교리서치가 지난달 1일부터 한달간 사찰및 신행단체에서 활동하는 불자 5백여명을 대상으로 '영상매체에 관한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불교TV 의견조사를 보면 전체응답자중 39.2%가 불교채널을 모른다고 답했다. 또 88.2%는 불교TV를 시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선보급이 원활치 못한점도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불교TV를 시청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64%가 시청곤란을, 18.6%가 홍보부족을, 4.6%가 다양하지못한 프로라고 응답했다.

불자들은 그러나 '천수천안' 'TV신행상담' '교리강좌' 등 신행프로를 기억에 남는 프로로 꼽고 있으며, 93.9%의 불자들이 불교TV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해 총체적으로 불자들이 거는기대는 큰것으로 나타났다.

불교영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84.6%가 불교영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지만 68.6%의 응답자가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소재의 다양화가 관건임이 드러났다.

또 불교비디오물에 대한 인식도에서도 불교비디오를 접해보지 못한 불자가 44.2%에 이르고 있어 유통및 일반보급처가 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결과 불교영상매체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은 극대화되는 반면 불교영상매체들은 발전과 질, 홍보에 있어서 그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김원우 기자〉

'신협' 준비의 겉과 속

목탁소리

이 준 엽 〈취재1부 차장대우〉

조계종 사업부가 추진중인 불교신협이 19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가칭)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신용협동조합으로 가시화 됐다.

조계사 신협은 조계사신도를 비롯 불교계 최대 상권으로 알려진 조계사 인근의 불구용품점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대형신협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계의 현안문제인 재정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러한 불교계 초미의 관심속에 골격이 잡힌 조계사신협은 6개월에 걸친 준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불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사업부가 내놓은 98년까지 3개년간의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따르면 예탁적립금없이 출자금으로만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조성자금의 90%를 대출금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혀 신협의 경우 지불준비금 10%를 확보해야하는 현실에서 실현성없는 수치를 설정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부의 계획서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부가 신협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협만 개설되면 일확천금이 생기는식의 착각은 위험천만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업부는 신협설립을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도 전문가를 영입하지 않고 관계자 자문에만 의존해 왔다. 수십 또는 수백억원의 자금이 유통되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돈이 모이는 곳에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신협은 경제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신협고유의 뜻을 펼칠 수 있다. 특히 이부분은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신협에서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신협의 세제혜택(은행-소득세 21.5%, 신협-농특세 2%)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 오는 97년에는 신협도 소득세 5%를 신설, 일반은행과의 세제혜택 차이를 줄일 방침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협은 금융업무보다 지역개발사업이 더욱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신협관계자들은 조계사신협의 창립에 앞서 정확한 방향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빠른시일내에 신협전문가를 영입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한다. 조계사신협의 성공여부는 지역 불교신협의 모델이 될뿐아니라 미래불교 중흥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상월 대조사 21주기

천태종, 1천종도 참석

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스님)은 지난 26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 제21주기 열반대재'를 성황리에 거행했다.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 1천여 종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열반대재에서 총무원장 전운덕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상월원각대조사님이 이룩한 위업과 나투신 자비공덕을 되새기는 동시에 종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진하자"고 말했다.

태고종 임시중앙종회

6월23·24일 총무원서

태고종은 6월 23일부터 이틀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70회 임시중앙종회(의장 신벽산스님)를 총무원 설법전에서 개최한다.

중앙종회의원을 비롯 전국 각사찰 주지스님이 전원 참석하게 될 이번 임시중앙종회의 중요안건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종단의 개혁안 △총무원 간부 임명동의안 △기타 종단의 현안 문제등.

진각종 창교절 행사

6월18일 전국 심인당

진각종(통리원장 최지광)은 6월 18일 탑주심인당을 비롯 전국 각심인당에서 진기 49주년 창교절 기념행사를 봉행한다.

또한 각 심인당에서는 창교절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제9회 전국 자성학교(어린이 포교 법회)백일장을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운문 산문 두 부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청주 불방지국 개국 준비 내년 초파일 목표 추진위 구성

대구와 청주의 두 지역에대한 방송국 설립허가와 관련,불교방송은 지난 20일 본사를 주축으로 중앙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이사장 종하스님, 추진본부장에 강한필 사장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설립추진작업에 들어갔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내년 초파일을 목표로 개국을 서두르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이 두 지역에 불음을 전파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과 광주의 추진과정에서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지역정서를 최대한 수렴하고 재정적인 면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많은 불자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지역추진위에 기득권을 주며 업무적인 것은 지역추진위와 협의하고 기술적인면만 방송국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침도 세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주지역은 5월말에서 6월초까지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며 6월20일경 경축대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구지역도 사암련, 동화사, 은혜사, 진각종, 태고종등 각 종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장후보 대담

29~31일 BBS '불국토…'

불교방송의 시사프로 '불국토의 아침 1부'(07:20~08:00)에서는 29~31일 3일간에 걸쳐 서울시장후보인 정원식 민자당 후보, 조순 민주당후보, 박찬종 무소속후보와 각각 특별대담을 마련한다.

"가치관 향상에 앞장"

부산불방 개국 108일 법회

불교부산방송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당사 10층 사무실에서 개국 108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 정관스님은 축하법회를 통해 불교방송은 "물량위주의 세태를 탈피해 정신적 사고를 높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부산방송은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탑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 불자 참여 저조

btn 주식공모 6월 마감

불교텔레비전 부산지사(지사장 우관수)는 지난 18일 오후6시 지사 회의실에서 교계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2차 주식공모(목표액 1백억)에는 불자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차주식공모 때 부산, 경남지역은 총 청약액 80억여원 중 34억여원을 청약해 총액의 43.5%를 차지했었다.

대구 개국 설명회

불교텔레비전은 지난 30일 오후7시 대구 프린스호텔 리젠시홀에서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개국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가수 남진의 불교 인연

김병조의 스타쇼 (31일, 11:10~12:00) 가요계 거장 남진씨를 초대한다. 남진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우연히 들었던 스님의 법문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어머니의 불교이야기, 히트곡 노래와 그의 인생역정을 듣는다.

환경보호 실천의 길

TV신행상담 (1일, 11:10~12:00) 불자들은 방생으로 강의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일조를 해왔다. 작은 자비도 중요하지만 작은 실천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돌궐족 사는 곳에 도착

삼장법사 현장 (3일, 12:30~13:20) 천축을 향해 발길을 옮기는 삼장법사. 앞에는 만년설이 덮인 웅장한 설산을 넘어 돌궐족이 사는 유목민촌에 도착한다.

김용운박사 수행 이야기

나의삶, 나의 불교 (3일, 11:20~12:00) 수학적 학문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김용운 박사의 세상사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육사외도에 관해 설명

교 리 강 좌 (1일 06:40~07:00) 이평래교수(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진행으로 육사외도(회의론, 숙명론, 불가지론…등)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

문정건씨의 여행정보

생방송! BBS 정보시대 1,2부 (2일 18:00~18:40, 19:20~20:00) 여행전문가 문정건씨와 함께 하는 여행정보를 들려준다.

각종 세무상담 진행

BBS생활상담실 (3일 11:20~12:00) 서광석 세무사와 함께 하는 각종 세무상담이 진행된다. 참여전화는 705-5555~5558.

이숙재 한양대 교수 출연

문화의창 (4일 오전 7시 15분~8시) '현대무용 과거 현재 그리고 2000년'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14회 국제현대 무용제. 무용제 주최자인 이숙재 한양대 교수가 출연한다.

성 명 서

불교성지 가야산 골프장 건설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주장

1. 가야산을 파괴하고 민족문화 유적지를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1. 경상북도는 가야산이 민족불교의 성지임을 직시하고, 전국 불교대중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
1. 졸속행정 책임지고 경북도는 도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현지 주민의 생존권 보장하라.
1.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해인사 승가대학 대중일동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민족불교의 요람, 해인성지가 파괴된다

해인사는 1200여 년 전 순응 이정 양대화상의 원력으로 신라 애장왕 때 창건된 도량으로 숱한 고승대덕을 배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조계선종의 거봉 성철 큰스님께서 주석하셨던 불교의 성지이다. 해인사를 품에 안은 가야산은 예로부터 **조선 8경의 하나**로 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여 왔다. 무엇보다 **국보인 팔만대장경을 간직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가 자리하고 있는 까닭에 그 명산의 위용은 더욱 빛나고 있다.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에는 현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규제 등이 완전히 무시된 채 **지난 '94년 12월 24일 어수선한 연말 분위기를 틈타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계획이 접수된 지 불과 12일 만에 전격 승인하여 졸속행정을 강행**함으로써, 이제 가야산은 포크레인 삽날에 48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이 파헤쳐지게 되었다.

더욱이 골프장 예정기역은 현재 해인사가 위치한 바로 가야산 뒷편이며, 인근에는 **신라 거대사찰이었던 심원사터와 법수사터가 위치**하고 있어 **불교문화유적지의 심각한 훼손이 분명하다.** 또 이곳 백운리의 가제재를 통해 팔만대장경을 옮겼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어 그 보전이 절실한 곳이다.

2. 자연을 살리자, 인간을 돌아보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가야산 백운동 일대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된다. 피해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목과 표토를 밀어내면, 보수력의 약화로 집중강우시 산사태 및 대형홍수가 예상된다. 골프장의 1일 용수량이 수백톤 이상으로써 계곡은 고갈되고, 하류지역 주민들의 식수와 농업용수의 절대부족을 초래하여 생존권의 위협을 가져오게 된다. 무엇보다 잔디 유지를 위해 맹독성 농약을 뿌림으로써**(농업의 8배, 산림의 27배, 69종의 농약살포)** 상수원의 오염은 주민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가 없는 상수원 바로 위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몰상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이와 같은 산림파괴, 토사유출, 식수오염, 대지오염, 생태계 파괴는 물론, 가야산 본연의 자연경관은 무참히 무너질 것이다. 그로 인한 **법보종찰이자 한국불교의 요람인 해인성지에 대한 이미지는 비생산적이며 소비지향적인 오락문화 골프장 때문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오늘날 환경윤리학은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첫째, 동물권·식물권은 인권과 함께 생태학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것은 인간 중심주의 내지 인간 우월주의를 부정하고 **범생명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는 한 마디로 자비의 실천이다.**

둘째, 현세대의 다음 세대 내지 미래 세대들의 생존가능성에 대해 책임이 있다. 현세대의 환경파괴는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가해자요 파괴자가 되는 것이다.

셋째, 인간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범생명의 공생가능한 지구환경패러다임으로의 대인식전환과 학문적 연구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진실로 내일이면 늦다.

오늘날의 물질만능, 대량소비사회의 산업화를 근본적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 인류는 자연과 인간을 본원적으로 돌이켜보아야 한다.

작금의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제벌기업은 그들의 이윤추구만을 위해 급속히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물질만능과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불교의 중도·연기·무아사상을 과감히 도입·수용해야 할 때이다.**

3. 깨달음과 사회실천은 둘이 아니다

사회를 제도하는 일은 불교의 고유한 역할이다.

사실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깨달음과 깨달은 바의 사회적 실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존재론적으로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다. 깨달음에는 이미 실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과 사회화」라는 말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동안 불교의 고유한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일은 현사회의 물질만능으로 인한 제반 사회문제 즉, 환경·노동·인권·빈곤문제 등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불교적 치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야산을 사랑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가야산은 발가벗기게 되었으며, 덕곡주민과 고령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민족불교의 요람, 해인성지는 오락성 놀이터로 둔갑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해인사 승가대학 대중일동**은 숭고한 생명존중의 기치를 치켜들고,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승인이 완전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가야산 해인성지 가람수호의 호법신장으로서 위법망구(爲法忘軀)할 것임을 천명한다.**

해인사승가대학대중일동

'공명선거' 불자들 나섰다

불민협 부정감시단 발족…운불연 차내 홍보물 비치

6·27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불교계가 마침내 공명선거 감시활동에 나선다.

불민협(상임대표 법타스님)은 30일 오후2시 총무원 1층 강당에서 '불교시민단체 정책캠페인 및 부정선거 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법타스님은 지난 20일 감시단 창립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지자제 선거에 대비 공명선거를 위해 불교계가 앞장섬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은 물론 불교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발대식후 불민협 11개 단체 2백여 회원은 조계사를 출발 종각을 지나 탑골공원에 이르는 공명선거 가두캠페인을 벌인다.

공선협과 연계, 범불교적 차원으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인 불민협은 공명선거 감시단 고발창구 개설, 불자후보지원을 위한 리서치 사업, 스티커와 전단 배포를 통한 지속적 캠페인 등을 주요 골자로 적극적인 공명선거 의지를 실천하게 된다.

전국의 운전불자들로 구성된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회장 분영호)도 지방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정착을 기치로 공정선거 파수꾼으로 나선다.

한국운불연 전국 11개 지역 1천여대의 운전 불자들은 차안에 '불법선거신고함'을 설치하고 시·군 선관위가 만든 선거부정 신고용 우편엽서와 각종 공명선거 홍보물을 함께 비치하는 한편 공명선거 스티커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울 BBS교통통신원 불자회도 한국 운불연의 공정선거 감시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했다.

또한 속초 불교청년회는 '내 고장 주인의식 공명선거로 꽃피우자'는 슬로건 아래 깨끗한 선거문화조성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충주불교연합회도 지역 20여개 단체와 연계해 가두캠페인을 비롯한 공명선거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공명선거 감시운동은 범불교적 운동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러한 불교계의 공명선거 감시활동은 현재 서울과 지방 공선협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계 단체가 부산 불교자비원등 소수 단체뿐임을 감안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명우 기자〉

전국사찰 '여름수련' 신청 접수

7월2일부터 실시예정

시한부출가로 일반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여름수련법회가 7월2일부터 8월10일까지 2달간 전국 각 사찰에서 실시된다.

송광사(주지 현고)는 '짧은 출가 긴 깨달음'이란 주제로 6차에 걸친 수련일정을 정하고 6월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0661-53-2130)

특히 송광사 4차(7월23일-27일)수련회는 교사수련법회로 현직교수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인사(주지 지관)도 7차에 걸쳐 수련법회를 실시하며 중, 고등학생을 위한 수련법회(7월24일~27일)를 마련했다. 6월15일 접수마감(0599-31-1001)

또한 해남 대흥사(주지 천운)는 금년에 일반인을 위한 여름수련회(3차)를 마련하고 6월 30일까지 수련생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0634-34-5502)

이밖에도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는 7월23일~30일까지 어린이, 중고등학생 여름수련캠프를 실시한다.

해인사 해운스님(해인사 포교국장)은 "사찰에서 진행하는 수련법회는 비록 4박5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하는 뜻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일반인의 동참을 당부했다.

신협 발기인대회 개최

조계종, 7월5일경 창립

조계종 사업부(부장 설송)는 지난 19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신용협동조합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신협명칭을 (가칭)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신용협동조합으로 결정했다.

이날 총무원 간부스님과 직원들로 구성된 발기인들은 조합원의 자격을 조계종 총무원스님 및 직원과 조계사 스님 및 신도로 하며 출자금은 1구좌 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오는 7월 5일경 창립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발기인대표로 사업국장 정만스님을 선출했다.



◇지난 17일 연대 세브란스병원서 신장이식수술을 마친 원공스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마음이라며 미소지었다.

원공스님 신장기증 '자비행'

생명공양 환희심…퇴원후 암자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스님들에게 있어 저의 신장기증은 보잘것 없는 작은 보시에 불과합니다."

깡마른 체구, 아직 미진조차 스치지 않은 듯 앳띤 얼굴의 원공스님(27세)은 자신의 신장기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오랜동안 투병해온 임모씨(남,51세)를 건강한 새삶으로 인도한 젊은 수행자 원공스님은 얼마전 재미교포 정근수행보살의 생명공양행을 접하고 지금까지의 자신을 되돌아 보고 더욱 용맹정진하고자 신장기증을 결심, 생명공양실천본부의 문을 두드렸다.

두달여 동안 속초 보광사서 서울을 오가며 20여가지의 검사를 받고 지난 17일신장이식수술에 들어갈때까지 스님은 오로지 한 생명을 살려낸다는 환희심 하나로 주위사람들의 염려를 녹여냈다.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나 심한통증이 시작됐을때 항상 웃으며 삶을 마감할 것이라 다짐했던 내가 이런 작은 고통에 신음하면서 과연 마지막까지 부처님을 부르며 갈 수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은 지난 24일 퇴원과 함께 밀양 두메산골의 한 암자로 기나긴 수행의 길에 올랐다.

이은자 기자

조계사 청년회 창립18주년

조계사 청년회(회장 이성상) 창립 18주년 기념법회가 6월3일 오후4시 조계사 법당에서 봉행된다.

창립이후 성도재일 예술제 제정, 3천배 철야정진 기도, 단오절 민족행사 제정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조계사 청년회는 법회에 이어 재등국민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종로경찰서 경승실 31일 개원

종로경찰서(서장 이택순 총경)는 31일 오후 4시 30여평 규모의 법당을 마련 경승실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경찰서 별관 2층에 마련된 법당은 휴게실도 겸비하고 있어 불법포교는 물론 직원들의 휴식처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전불련 통일문화제 개최

전불련(상임의장 지선스님)은 지난 22일 수송옥에서 교계기자 간담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과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는 6월3일 갖게될 '(가칭)일하는 불자들의 모임' 창립과 7월1일로 예정된 '통일문화제' 등을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정한 전불련은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중사업과 조직사업, 활동인력 양성사업을 펼칠 것임을 표명했다.

청교련 아시아축제 참가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지난 30일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축제'에 청소년 우수단체로 참가, 화관무를 펼쳤다.

청교련은 우리나라를 비롯 13개국이 참가한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화의 실천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상호이해, 교류증진에 역점을 뒀음을 시사했다. 또 청교련은 31일 이번 행사에 참가한 13개국 공연단 중 6개국을 초청, 명성여고에서 청소년 한마당을 마련한다.

대각사 화재 3천여권 소실

지난 24일 오전 1시50분쯤 서울종로구 대각사 지하서고에서 불이 나 내부 7평과 법보시용으로 대각사에서 발행해 보관해오던 〈불타조사원류〉등 3천여권을 태우고 20분만에 꺼졌다.

화재원인은 전기누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자나까스님 위파싸나 법문

미얀마 고승 우자나까 대선사가 한국을 방문 지난23일 서초동 유마선원에서 위파싸나 관법수행에 대한 법문을 설했다.

우자나까 선사는 지난 26일 경기도 와우정사서 2박3일간의 위파싸나 수련법회를 마치고 29일 출국했다.

국제포교사 연수생 12명 선발

조계종, 스님4명 포함 학생·주부·직장인등

해외포교의 선봉장이 될 국제포교사 연수생 12명이 선발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은 지난 20일 국제포교사 연수생 공개모집을 통해 스님 4명을 포함 대학교수 학생 주부 직장인등 재가불자 8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들 연수생들은 31일부터 연등 국제불교회관에서 6개월간 포교사교육을 받게되며 연수후 국제포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국제포교사가 되면 해외 교포와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포교원은 21일 부산 불교교육대학에서 부산·경남지역 포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자리에는 2백80여명의 포교사가 참석, 한국의 종교현황과 포교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포교원은 지역별로 포교사 연수교육을 계속 진행하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전주·전북지역지역 (6월4일 오전 11시 화엄불교대학), 대구·경북지역(6월11일 오전 10시 대구불교대학), 서울·경기지역(6월11일 오전 10시 총무원 청사 1층강당)



◇정부가 가야산 국립공원내에 골프장 건설을 승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는 골프장 건설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동국대 '21세기 기획단' 출범

제3캠퍼스·연극영화학원 운영등 발표

종립학교인 동국학원에 21세기를 대비한 통역학원, 연극영화학원등이 설립될 전망이다.

3개분과 총11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동국대 '21세기 기획단(위원장 정병조교수)'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단기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21세기 기획단이 발표한 계획(안)은 △대학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대학 경영 합리화 방안 △학사 행정의 쇄신방안 △수익사업 연구방안 △신학풍조성 운동 등이다.

21세기 기획단은 대학 중장기 종합발전의 세부내용으로 제3캠퍼스·불교종합병원 건립, 해외분교설치, 학제 및 학과 명칭연구 등을 제시하고 사회 교육프로그램으로 통역학원, 박물관대학, 연극영화학원 등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주한미군범죄 심각

불교인권위 대책 촉구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법)와 전불련(상임의장 지선스님), 대구 자비의 전화(회장 재원스님)등 7개 단체는 지난 19일 지하철에서 발생한 만취미군의 성추행, 시민폭행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

해인사 승가대 대책위 구성…승인 철회 주장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계획승인과 관련 해인사 승가대학은 대책위원회(위원장 광원스님)를 구성하고 지난 24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인사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 승인은 자연보호를 무시한 졸속행정이다"며 "민족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승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승인이 백지화 될 때까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양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불교사회복지회…31일 서울시와 계약 체결

불교사회복지회(사무국장 해인스님)가 서울 강서구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을 허가받아 오는 31일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온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가 운영을포기, 4개 단체가 올 초부터 경합을 벌인 끝에 불교사회복지회가 운영을 맡게됐다.

범어사앞 아파트 건설

반대여론 급속 확산

부산 범어사(주지 정관스님) 앞 아파트 건설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와 신행단체, 환경단체등 회원 1백여명은 지난 23일 연제구 연산2동 경동아파트 견본주택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동건설측은 아파트 건설을 철회하라"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범어사는 6월6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고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각계에 진정서 보내기 운동등을 펼쳐 여론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동문스님들 기금 기탁

중앙승가대인 결의대회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스님)은 지난 24일 개교 16주년을 기념해 학사이전을 위한 '중앙승가대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앙승가대학 교수협의회, 동문회, 학생회의 공동결의로 이뤄진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제3회 동문스님들이 5천만원의 발전기금을 학교에 내놓기도 했다.

행자교육 공간마련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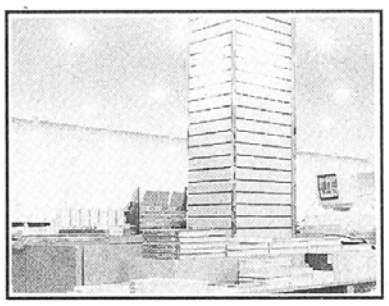
불학연구소 세미나 개최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덕운)는 지난 24일 녹수청산에서 '행자교육의 교육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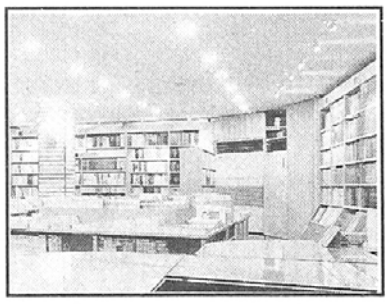
이날 성우스님(파계사)은 "행자교육은 교학위주의 강의보다는 발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행중심의 도량이 돼야 한다"며 "행자교육원의 공간마련과 상설교수제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학연구소는 8월16일까지 7차에 걸쳐 교육관련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불응가득 · 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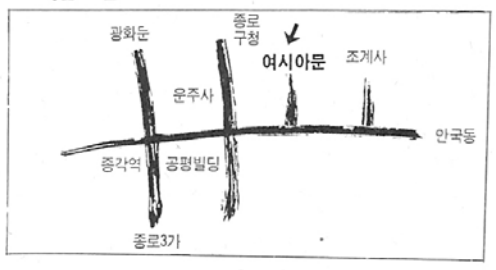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4°1.부터 시행 예정)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 32, 59,84,159,331,588-2번

8만 암자 자취없고 4개 절만…

지현정사가 본 북한불교

그리운 금강산을 가다 〈2〉

평양 방문 이틀째인 4월24일, 원산을 경유 '그리운 금강산'에 도착하였다.

원산을 지날 무렵 우리 일행 중에는 고향인 그곳 수안에 어머니가 아직 살고 있는 교포가 한사람 있었는데 안내원의 배려로 잠시 차를 세우고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10분이면 달려가 얼싸안을 어머니를 그는 끝내 이번 방북 기간에 만나지 못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다. 북한측은 이번 방북 기간에 이산가족의 만남은 전면 허용하지 않았다. 출발 당시부터 이러한 조건이 붙었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북행길에 올랐던 이산가족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화상반주 없는 노래방

우리는 해금강 삼일포에서 조개구이와 얼러지국으로 저녁을 먹었는데 그림같은 풍광과 더불어 특산물인 얼러지 산나물은 참으로 일품이었다. 얼러지 산나물은 봄에 눈이 녹자마자 제일 먼저 돋는 산나물로 강원도 이북 지방에서만 난다고 한다. 삼일포에는 대나무 낚싯대를 들고 낚시하러 나온 주민들도 보였는데 옷차림은 남루한 시골사람이었다. 그러나 인상만은 매우 후덕해 보였다. 그들은 가끔 이렇게 물놀이도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여유마저 제재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금강산에 도착한 것은 오후 9시경, 금강산 호텔에 투숙한 우리들은 대부분 소문에 듣던 금강산 온천탕을 찾았다. 동행한 정산스님은 해방전 이곳에 어머님과 함께 대녀 가신적이 있다고 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옛날 이야기를 하였다.

금강산 온천탕의 질은 전문지식이 없어 모르겠으나 금강의 물로 목욕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독을 풀기에 충분했다. 별이 쏟아질듯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밤. 나는 나이 들어 그렇게 많은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없었다.

바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12층의 휴게소에 올라갔는데 입구에 노래방이라고 표기된 곳이 있어 호감이 가 들어갔으나 화상반주기는 없고 테이프를 돌리는 화성기뿐이었다. 안내를 맡은 금강산 처녀들은 노래를 신청하라 하는데 막상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없고 자연히 이루워진 합창이 고향의 봄과 반달이라는 동요뿐이었다.

불교용어인 '금강'에서부터 비로봉, 세존봉, 관음봉이라고 이름 붙여진 금강산은 가히 불교의 산이라고 해야 옳을 듯 싶었다. 금강산 등정에서 처음 부딪힌 관문이 신계사터요, 마지막 보고내려온 것이 미륵불이라는 구룡폭포 옆의 암각 글씨였으니 금강산 관광은 불교로 시작해서 불교로 끝나는 것 같았다.



신계사 절터 ◇금강산 입구 극락고개밑의 신라고찰 신계사터(국보유적96호). 1기의 석탑만이 제자리에 서 있고, 당우가 있던 빈터엔 표식이 잘 되어있다. 2명의 관리인이 관리한다.

신계사·유점사등 남북 공동복원 했으면

바위마다 金부자 찬양문구…자연 훼손커

표훈사·보덕암 등 보존

현재 금강산에 보존되고 있는 사찰은 내금강의 삼성암, 표훈사, 보덕암, 정양사 등이 있고 묘길상과 삼존불등 암각석불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불교도연맹 간부들을 만났을때 신계사 복원문제등을 거론하자 북한에서는 모든 불교유적은 정부차원에서 복원함으로 그 의제의 비중은 애써 외면하려는 눈치였다. 민족의 영산이 백두라면 불교의 성지인 금강엔 언제쯤 우리 불자들의 순례 발길이 닿으려는가.



◇금강산 구룡폭포옆 바위에 암각된 '미륵불' 글씨. 50m가 넘는 '미륵불'이 지워지지 않은 채 관광객을 맞고 있다.

한때 팔만구암자가 있어 아침이면 봉우리 암자마다 솟는 밥짓는 연기가 일품이었다는 금강산에는 이제 절이라고는 4개가 전부다. 안내원이 그 옛날의 신계사, 유점사 빈절터의 영화로움을 전해줄 뿐 금강산 입구 관음봉과 문필봉을 가로 건너 극락고개 밑에 있는 신라시대 고찰 신계사는 이제 1개의 석탑만이 제자리를 지킬뿐 대중들은 더나고 당간지주는 누워있다. 배밭으로 변한 대웅전 뜨락은 장안사 노래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데 천만 다행인것이 나한전, 칠성각터 등이 잘 표기되어 있고 국보 유적95호라는 석비가 그래도 새날의 목탁소리를 예견하는 듯 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북한은 모든 사찰을 복원할 형편은 못되지만 문화유적 차원에서 복원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 의지는 신계사 하나만을 보더라도 충분이 알수 있었다. 북한 당국은 최근 광법사를 비롯, 정릉사를 복원했으며 조선불교도연맹 청사내에도 법당을 구비해 놓고 있었다.

금강산 관광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위마다 새겨진 무수한 김주석 일가의 찬양 문구다. 그 엄청난 작업을 어떻게 해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어떤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자연은 훼손되지 않은채 보존되는 것이 인류의 상식이다. 가본 사람으로서 물론 그 체재와 입장은 이해하거니와 이제 더이상의 관각은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간곡한 서원이었다. 그러나 한편 북쪽에서 제작 출간된 금강산 안내도록을 펼쳐보면 어디에도 그런 사진을 싣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그래도 어떤 감이 잡혀오는 것 같기도 하다. 금강산에서 돌아오는 발길은 이러한 감정 탓일까 내내 씁쓰레 했다.

주부신행담

세상의 손발 되어 ④

상담의 목적은 종교를 초월하여 고통받고 상의할 곳 조차 없는 어려운 이웃들의 상대가 되어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사찰에서 상담전화를 운영하다보니 개인적인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일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꼭 도와 줘야 할 경우도 종종 있었다.

정방부채에 군법당을 세우고자 하는 젊은 군인들을위해 모금을 해서 도와주기도 했다. 일년여만에 여러곳에서 애써준 보람이 있어서 법당이 완공되어 기념준공법회가 열리고, 꼭 참석해 달라는 군인불자들의 요청에 회원들과 음식과 책을 준비해 부대를 방문하여 함께 법회를 보았다.

언덕위에 자리잡은 아담한 법당에서 지역에 계시는 스님을 모시고 여법하게 법회를 치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너무나 뿌듯했지만 한편으로 군인불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고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였다.

교계의 군법당에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하고 인식또한 저변화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뜻있는 지역사찰이나 스님 그리고 군법사들의 노력으로 군법당이 세워지거나 법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행운인 편이었다.

이 부대도 예외없이 좋은 자리에 교회가 있었고 일요일이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많아서 매번 간식을 준다고 했다. 종교를 떠나서 초코파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교회를 가는 군인도 많다고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앞섰다. 불교계가 군법당에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군에 입대하여 정신적 방황을 이겨내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듣는다.

육체적 훈련을 이겨나가며 마음붙일 곳, 의지처가 필요한 군생활에서 종교에의 귀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군은 청년불자의 포교발이며 중요한 곳이라고 법사님은 이야기하며 관심을 가져주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상담실 본연의 자세에서 약간의 외유였다.

> "교회에 나오면 도와 주겠다는 말에 순간 솔깃했지만 '우리는 불자가정입니다. 이제 오지 마세요'라고 밝혔습니다" 미흡한 포교를 반성해야 할 말이었다.



괴로움을 호소하는 곳을 일일이 찾아가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가끔 꼭 찾아가 도와 줄 곳이 생기기도 한다.

한번은 다른 상담기관에서 의뢰해 왔다. 불자인데 오랜 지병으로 요즘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외출도 어렵고 밥도 겨우 해 먹는다고 했다.

특히 김치가 이미 떨어져서 일찍 일나가는 외아들 아침 밥도 못해줘 혼자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 굶고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이라고 했다.

평생을 부처님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이웃의 교회에서 목사와 신도들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번 방문와서 기도를 하고 돌아갈 때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제는 다시 오지 마세요. 우리집은 불자 가정입니다" 했다는 것이다.

한편 마음으로는 도움을 주겠다는 교회에도 일순간 솔깃했다고 한다.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됐다. 문제는 불교의 포교 방법이다. 제도적인 봉사활동의 미흡은 우리스스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평생을 불자로 살아왔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여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는 개종하는 경우를 종종 봐 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도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 왔던 터라 공감이갔다.

그 불자 가정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선 급한 쌀과 김치를 담구어 다음날 찾아가 전해 주었다. 연신 그는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진찰받기 위해 미리 말해놓은 불자 내과의사선생님을 찾아가 진료를 받게 해 주었다. 심한 당뇨병에 합병증 거기다 정신적인 불안까지 겹쳐 더 어렵게 된 상황이었다. 선생님은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있다.

상담을 하고 실지로 내담자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쉽지않다. 한가지 일만도 벅찬 일인데 다행히 부처님께서 아직은 건강한 몸을 주신 가피력으로 일 할 수 있는 날까지는 이웃의 귀와 손이 되어주려고 한다.

동 여래성〈구룡사 진리의 전화 회장〉

생활 속의 불교 ㉗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



아내는 남편의 여종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이다. 남편은 아내의 머슴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이다. 아내는 아내대로 때에 따라서 여종이 되었다가 어머니가 되었다가 해야 할 것이요, 남편 또한 상황에 따라 머슴 역할·아버지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현명한 아내·현명한 남편이란 감싸 줄 때와 타이를 때를 잘 알고 양보할 때와 주장할 때를 잘 살피는 사람이다.

내 가정을 살리는 속에 부처로 가는 길이 있다. 가정은 천국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 아니, 가정은 불국정토의 실현장이다. 가정엔 자비와 사랑이 있다. 이타(利他)의 가르침이 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사랑의 위대성을 배우고 인격의 조화를 배우고 성의 조화를 배우고 건강한 삶의 가치를 배운다. 자녀들에게 가정은 평등·자애·화합·질서·윤리의 수련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가정은 불국정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곳이다. 가정을 불국정토와 닮게 하라.

나의 가정·나의 가족을 제쳐두고 먼 데 일을 이야기하고 걱정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또다른 욕심일 뿐이다. 마치 포장만 그럴싸한 질 낮은 상품 같이.

그렇다고 나의 가정·나의 자녀에 대해 애착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다. 애착은 버리되 인연은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인연따라 거두는 것, 그것은 보살행이다. 왜냐하면 가령 아버지·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건져주고 인도해주어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되고, 나 하나로 인해 여럿이 희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가정이 불국정토를 닮게 하려면 몸으로, 물질로 대응하기에 앞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남편, 아내 자녀 간에는 눈빛만 보아도 심중을 헤아릴 만큼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 다이얼을 돌리지 않아도 무선통신이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마음으로 북돋아주고 거름을 주어라. 소리를 지르고 체벌을 가하지 않아도 상대를 내 마음 속에 넣고 티없는 사랑으로 감싸면 반드시 통하게 된다.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게 불법을 따르는 것이다. 가정은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협찬 : 김 재 환